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6월 9일)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충성! 군포교 이상 무!" 육 · 해 · 공군 각 부대에서 군포교에 진력할 신임 군승 12명이 자대 배치를 받고 전법의 원력을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0일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을 비롯해 선임군승 7명과 신임군승 12명의 예방을 받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신임 군승이 진우 스님에게 임관 신고를 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K-불교 알리기' 나선다

문화사업단, 금산사 등서 사찰 전통문화체험 진행
템플스테이 홍보관 운영
대회 전후 템플스테이도

4년마다 펼쳐지는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들의 대회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 171개국 청소년 5만 명이 모이는 대회에서 '한국불교 알리기' 불사가 본격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대회 기간 영외과정활동 사찰문화체험을 비롯해 새만금 템플스테이 홍보관, 대회 전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먼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외과정활동은 전북도 14개 시 · 군이 보유한 자연 · 전통 · 문화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사업단은 금산사, 내소사, 선운사에서 당일 템플라이프를 진행한다.

현재 프로그램에 접수된 방한 외국인 청소년은 총 8900여 명으로 이들은 금산사, 내소사, 선운사에서 △사찰 성보문화재 해설 △연꽃등 만들기 △트레킹 △다도 △인경 △K-팝 댄스 배우기 △요가 체험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공동홍보구역인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텔타 지역에서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운영된다. 약 400㎡ 규모로 운영되는 홍보관에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안내와 추천을 비롯해 실시간 예약 창구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합장주 만들기 △템플스테이 사진전 △사찰음식 모형 전시 △다국어 홍보물 관람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또한, 대회 전후로 4박 5일 동안 한국을 지역별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국불교 체험이 이뤄진다. 여행 경비가 모두 자부담임에도 7월 20일 기준 독일, 덴마크 등 8개국 3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를 신청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에서만 약 28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골굴사, 금산사, 낙산사, 불국사 등 전국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잼버리 법당과 서브 캠프, 푸드하우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장 내에 설치될 '잼버리 법당'은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된다. 단주 만들기, 소원 연꽃등, 풍경 만들기, 나만의 상상붓다 그리기, 함께 완성하는 소원탑 그리기, 108배 챌린지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가국 예불 체험도 가능하다. 오전과 오후 하루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몽골과 대만 등의 예불을 경험해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역대급 '극한호우'에 불교유산 피해 확산

조계종 · 문화재청, 피해 현황 집계 발표

불교 국보 · 보물 등 7건 피해
부석사 조사당 도로 토사 유입
다수 전통 · 일반사찰 비 피해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역대급 '극한호우'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부석사 조사당 등 불교문화유산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7월 19일 현재 총 50건의 국가유산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불교 관련 국가유산 피해는 총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국보 부석사 조사당도 있었다. 나흘간 900mm의 호우가 쏟아진 영주에 소재한 부석사 조사당은 주차장 및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됐으며, 조사당 옆 취현암 주변은 토사가 유실되기도 했다. 현재는 진입로 복구작업에 들어갔고, 관람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보물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비로자나불좌상은 경내 법면 토사가 유실됐다. 현재 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물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은 석탑에서 2m 이격된 석축 중 일부가 붕괴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추후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승' 순천 송광사 천자암의 석축 일부가 붕괴됐으며, '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으로 토사가 유입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방수포를 설치하고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호우로 인해 사적인 순천 선암사의 경내 해천당의 기와가 탈락되고, 무우전 담장이 붕괴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피해발생 지역 접근을 차단한 상태다. 누적 강수량 500mm가 쏟아진 사적 익산 미륵사지는 문화재 구역 내 법면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청은 "피해 직후 문화유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응급복구 및 추가훼손 방지를 위해 긴급보수사업 신청 중에 있다"면서 "피해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8월 중 긴급보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과 일반사찰의 비 피해도 속출했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이 7월 17일 공개한 '집중호우 피해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통사찰 13곳, 일반사찰 1곳에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건, 충북 1건, 전북 2건, 전남 1건, 경북 4건으로 모두 충청 이남 지역에 해당됐다.

전통사찰은 공주 마곡사가 수목 전도로 출입구가 막혔으며, 응진전과 명부전 기와가 탈락했다. 논산 쌍계사 역시 진입부 수목이 전도됐으며, 관촉사는 주차장이 침수됐다.

전북에서는 전주 서고사 대웅전 후면의 수목이 전도됐다. 장수 영월암은 수목 전도로 인해 법당 기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북은 예천 용문사 마을 입구 도로가 유실되면서 주차장이 피해를 입고 경내에 토사가 유입됐다. 명봉사는 산신각 옆 주차장에 피해가 발생했고, 문경 대승사도 진입로 토사 유입으로 침하와 암자 도로 유실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 문화부는 문화재청, 문체부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피해발생 사찰에 대한 복구 지원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호우 피해 복구위해 팔 걷다

조계종 등 긴급구호모금 추진
조계사 · 도선사 구호기금 전달

연이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7월 18일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불교조계종 긴급구호선발조사단을 파견, 피해상황 파악과 주변 사찰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경북 예천 및 충청지역 정확한 현장의 호우피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찰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했으며 호우피해 지역 파악과 관련 현지상황을 논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긴급모금 및 피해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태종NGO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 성금 모금과 함께 생활물품도 모집한다. 모금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는 충남 공주로 현장 조사단을 파견,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 전개 및 지원을 계획 중이다.

사찰들은 수해복구과 이재민을 위한 성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이승현 신도회장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전국적으로 사찰 피해도 커서 조계사가 먼저 마음을 내고자 성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성금 2000만원과 생수 2만7000병을 기탁했다. 태원 스님은 "수해 희생자를 위해 위령재를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 임은호 기자**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대학생 전법 시동…"1교구 1대학 지원"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

위원들 집결 향후 비전 공유
거점 대학에 불교학생회 설립
2025년까지 회원 2만명 목표

본사별 전법 권역 협의 진행
종단협 소속 종단 협조 확대
9월 5~6일 통합 워크숍 개최



상월결사는 7월 19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위원들이 삼귀의를 하는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생 전법을 위해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캠퍼스 포교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부터 1교구당 1개 대학에 불교학생회 설립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 대학 불교학생회 회원 2만 명을 목표로 대학생 전법이 추진된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7월 19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6일 공식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는 600여 명의 전법위원이 참여하는 전국구 전법공동체다. 집행위원회는 각 교구를 대표하는 전법위원과 조계종 포교원, 셀럽, 비구니 종회의원, 교수불자 대표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인도순례단 전법위원인 원명 스님이 맡았다. 정책기획단은 대학생전법위원회 출범 TFT가 변경된 것으로 단장은 박기련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국 400여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없는 곳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본사별 대학 전법 권역을 정리했다. 또한 대학생전법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도 공유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올해 1차 목표는 '1교구 1대학'의 기치 아래 지역 거점 대학 내 신규 불교학생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동국대 단과대학별 불교학생회 설립도 진행된다. 내년 불교학생회 회원 1만 명을 목표로 기존 대불련 회원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2025년까지 대불련 소속 불교학생회 가입 대학을 현재 58개에서 10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학생회원 수를 2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생 전법을 범종단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이는 "대학생 전법에는 소속 종단이 없다"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으로, 상월결사는 오는 8월 2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을 초청해 대학생 전법의 현황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9월 5~6일 1박 2일 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전법위원 워크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은 9월 5일 오전 11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모범 운영 사례 발표 △유정현 대불련 회장의 '대학생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MZ세대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 초청 특강 △권역별 전법위원 구성 및 토론이 진행된다. 6일에는 △초청특강 △의료 · 군종 · 동국대 전법활동 추진계획 발표 △권역별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해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은 8월 8일 오후 3시 2차 연석회의와 8월 24일 오전 10시 예비 워크숍을 열고, 지도법사 추가 위촉과 워크숍 세부 논의 주제 등을 조정키로 했다.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 건학위원장)은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회향하며 회주 자승 스님께서 강조하신 대학생 전법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무엇보다 자승 스님께서는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전법을 강조하셨다"면서 "내년 1만 불교학생회 회원들을 모아 장충체육관에 전법대회를 열 계획이다. 모든 사부대중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은 "대학생 전법에 한국불교 미래와 중흥이 달려있다. 적극적으로 전법에 임하겠다는 원력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1만 대학생 불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은 회의에 앞서 동국대 중강당에서 연습 중인 5기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 단원과 이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을 격려했다. 이들은 7월 21일 열린 '2023 국악관현악축제'에 참여한 국악 전공 대학생들로, 동국대를 비롯한 11개 대학 재학생 80명으로 구성됐다.

"가족기도는 온 가족이 함께해야"

도선사 찾은 진우 스님, 초하루법회서 법문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절에 다니면서 가족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가족기도는 가족 구성원 1명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큰 공덕이 쌓입니다. 언제까지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왔다' 고 해야겠습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7월 18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호국참회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에서 법문에 나섰다. 스님은 이날 본격적인 법문에 앞서 최근 호우 피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빗줄기를 뚫고 온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업장소멸을 위한 불자들의 삶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했다.

진우 스님은 가장 먼저 천상과 인간, 수라를 한데 묶은 삼선도(三善道)와 지옥, 아귀, 축생이 해당하는 삼악도(三惡道), 즉 육도를 언급했다. 이어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탐진치 삼독심에 따른 업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생사는 단순히 태어나고 죽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좋은 게 생기면 반대로 싫은 게 있는 것처럼 인과가 작용하고 이는 곧 업이 된다"며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업을 줄이라고 하셨다. 그게 바로 업장 소멸이고, 내 안에 있는 업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생사해탈의 경지"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업장 소멸을 위해 수많은 스님들이 참선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좌한 자세로 신업을 청정히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묵언으로 구업을 청정히 하고, 화두를 지속적으로 참구하면서 의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곧 참선이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이어 "불자들이 스님들처럼 참선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염불을 하거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가장 좋다"며 "그중에서도 보시는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아상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라고 강조한 스님은 "불자들이 가족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 법보시 공덕을 더욱 키워야 한다"면서 "사찰 법회나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권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명상 대중화에 '불교' 적극 살려야"

조계종 포교원, 종책 연찬회
오용석 교수, 승가역할 강조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제81차 포교종책 연찬회.

불교명상의 기본개념과 정신을 확인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통해 대중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7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1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법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명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찬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 △사찰의 명상 프로그램 운영사례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실천, 명상 등 3부로 나눠 발제가 이어졌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불교명상의 기본 개념과 정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K-불교명상'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불교명상 관점에서 K-불교명상은 개념 범주에서 K-명상보다 깊고 포괄적인 층위를 갖는다. 따라서 불교명상 대중화와 보편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교'라는 이름을 지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살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승가의 역할 강조와 계학에 근거한 이타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가에 대해 "깊은 전통을 가진 건강한 승가의 역할은 자기암시적 심리효과나 자기계발 등을 명상의 근본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대중적인 명상법들이 갖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자비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불교명상은 우리를 나른한 자아도취, 현실에 대한 망각 등을 부추기게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서 "그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마주하고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 무상한 현실 속에 자비심을 갖고 다른 존재를 돕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불교명상이 대중적인 명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라면서 "불교명상은 각종 명상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는 생명존중과 자비실천을 위한 명상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향후 불교명상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겸임교수는 '생명존중과 자비실천을 위한 명상'에서 생명존중과 공생(共生)의 가치관을 소개하고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명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요익중생할수 있는 불교명상과 마음치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당연직 종단협 회장 수행키로

이사회 결의…회장 선출 논란 해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30개 종단협의 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을 앞으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제60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한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9명 가운데 35명이 참석, 4명이 위임했다.

종단협 회장직은 1969년 종단협 전신인 대한불교총연합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아왔다. 기존 정관에는 '회원종단 대표 또는 회원종단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해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종단 역사성과 규모를 고려해 조계종이 사실상 종단협 회장직을 수행한 것.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前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회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두 종단 모두 상당 기간 회비를 미납하다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 완납하면서 자격문제 시비도 제기됐다. 결국 태고종과 대각종이 회장 후보 등록 의사를 철회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종단협 내에선 조계종의 사실상 회장직 수행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은 이날 정관개정을 거쳐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했다. 또 3년 단임의 사무총장직은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기금 5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종단대표로 취임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부회장 임원변경도 이뤄졌다. 이 자리서 덕수 스님은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잘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와 종단협을 위해 부처님 제자로서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홍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아직도 어깨와 허리힘으로 광택을 내시나요
광택은 쉽고 빠른 이지 골드로!!
이지골드 광택제는 닦기가 쉽고 광택이 오래 유지됩니다!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골드
EASY GOLD
초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은, 동
놋쇠(방짜), 신주, 자동차 알미늄휠, 스테인레스, 모든 금속류

스텐, 알루미늄, 청, 법랑, 타일 등의
산화물 세척의 원조!!
ST-100V
에스티-백 브이



영 일 상 사 010-5462-3620
영일상사 1호점 010-3495-5579
네이버 쇼핑
영일상사 1호점 검색

“〈한마음요전〉 종교교육 교재로 확장 모색을”

김은영 교수,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한마음선원 기록 담은 ‘요전’
‘합리적 교육 과정 모형’ 분석
과정-주체, 주인공 되는 순환
보편성 부족…활용법 모색해야
전자책 개선, 필사집 등 제언

안양=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행장, 법어 등이 수록된 〈한마음요전〉의 종교교육 교재로써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7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종교성 교육을 위한 교재로써 〈한마음요전〉 분석’ 을 발표한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는 〈한마음요전〉(이하 〈요전〉)의 종교교육 교재로써 활용방안을 처음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요전〉의 내용과 체제를 미국의 교육학자 랠프 타일러(R. W. Tyler)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목표중심 교육과정 모형)’ 으로 분석해 종교교육 교재로써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타일러 모형에 따라 〈요전〉을 △교육목적과 목표 △학습경험 제공 △학습경험 조직 △평가 등의 구조로 분석한 김 교수는 순환적 교육과정, 연기적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요전〉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디서 시작해도 시작과 끝이 연결돼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와 동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역시 스스로가 깨달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교육관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김 교수는 “〈요전〉 전체가 학습자로서 대행 선사의 학습경험인 과거 내용이면서, 동시에 교수로서의 가르침을 정리한 현재의 내용이다. 이 책을 읽을 잠재적 학습자들을 통해 학습경험과 학습조직은 미래로 연결돼 있다”며 “교육구조의 과정에서 모두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순환이 발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김은영 교수.

이어 “대행 선사가 〈요전〉을 통해 밝히고자 한 가르침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은 나이면서 중생이고 부처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며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요전〉의 모든 내용들이 학습경험과 학습조직이 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요전〉이 보편적 종교성을 담보한 종교교육 교재로는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교재로써의 재구성 등 새로운 활용과 확산을 모색해야 함을 요청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교재로써 〈요전〉의 활용방안에 대해 △〈요전〉 전자책 개선 △한마음선원 프로그램에서의 활용 △〈요전〉 필사본 출판 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마음선원 누리집과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에는 〈요전〉 전자책이 게시돼 있지 않다. 반면 주요 서점의 전자책 채널에서는 판매되는데, 리뷰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확산의 측면에서 한마음선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전〉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선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을 위해 〈요전〉 내용 중 보편적 종교성이 드러나는 문구를 발췌한 필사본 출판물도 필요하다”며 “필사를 통해 〈요전〉의 본문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여수 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장 법우 스님은 ‘일본 정토종 종조 호넨(法然)의 보리심관(菩提心觀)’ 을 통해 일본 정토종조 호넨(1133~1212)이 보여준 다소 도발적인 보리심에 대한 관점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법우 스님은 호넨의 〈선택본원염불집〉(이하 선택집) 등 저서를 근간해 그의 보리심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호넨은 보리심은 불도(佛道)의 전제로 보지 않고 ‘정토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즉, 원생심(願生心)을 정토종의 보리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우 스님은 “천태종 승려로서 제종의 교학과 수행을 섭렵했던 호넨이 정토불교로 회심한 것은 스스로가 계 · 정 · 혜를 닦아 불도를 이룰 수 없는 우치범부임을 자각하면서부터”라면서 “보리심은 범부에게는 실로 내기 어려운 마음이다. 칭명염불을 통한 타력왕생의 길은 보리심을 내기 어려운 범부에게도 열린 불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사’ 를 주제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발표를 맡아주신 법우 스님과 김은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한마음선원에서 〈요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배웠다 해서 아상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 해서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지식이 지혜로 변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8월 25일까지 작품 접수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전’ 이 오는 8월 23일까지 각 분야별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부문은 방송과 언론보도, 뉴미디어, 특별부분, 언론인이다. 각 분야마다 연기 · 중도 · 자비 · 생명 · 평화 등 불교적 관점을 담아야 하며, 언론인의 경우 불교 언론 분야에서 공로가 있어야 한다.

불교언론인상을 제외한 모든 부문은 응모 신청서와 더불어 부문별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영상은 용량 10GB이하, 라디오는 오디오 확장자 mp3 또는 wav, 신문은 전면기사 출력 3부와 모든 파일의 PDF 합본 1개를 첨부해야 한다. 응모사유서와 작품설명서는 자유양식 3장 내외이며 선택사항이다.

모든 부문의 경쟁을 거쳐 선정되는 대상작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부문별 수상작은 상패와 함께 상금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특별상 100만원이 주어지며, 언론인상은 300만원이다. **윤호섭 기자**

‘가수계제도’ 출가 문호 넓힐까

동국대 전자불전硏, 7월 27일 학술대회

단일계단 이전 사용한 ‘가수계’
출가 문화 확대 방안으로 논의

현재 한국불교 화두 중 하나는 ‘출가자 감소’ 다. 조계종은 10년 전부터 다양한 출가진흥책을 내놨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가 문호를 넓히기 위한 ‘가수계제도’ 복원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는 7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그 문호를 크게 열다-가수계제도의 현대적 복원과 모색’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일반적으로 출가자가 수계를 받기 위해서는 3사(전계사, 교수사, 갈마사)와 7증사를 구족해야 한다. 그러나 오래 전에는 수계산림을 정식으로 열어서 계를 내릴 수 없을 때 일정한 대중의 수가 갖추어지면 계를 받게 했고 이를 ‘가수계’ 라고 했다. 수계를 하지 않으면 승단의 일원이 될 수 없어서 약식으로 계를 설했던 것이다.

‘가수계’ 는 오늘날에는 낯선 개념이지만, 조계종에서 단일계단 제도가 자리 잡기 전 많이 쓰이던 개념이었다. 실제 20~30년 전 한국 사찰이나 총림에서는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수계제도의 현대적 복원을 위해 율장과 이웃나라 수계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가수계 수용의 모색과 발전방향(승범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율장의 수계법에 근거한 가수계 적절성 논의(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근현대 대만불교의 출가와 수계(경완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선시대 〈작법귀감〉의 수계의식(강향숙,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문광 스님(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기룡(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이진영(동국역경원), 태경 스님(조계종 의제실무위원)이 참여한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출가자가 급감하는 시기에 가수계제도를 통해서 짧은 기간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차후에 그들이 정식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출가 경험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잠깐 선택했던 출가 때문에 세속에서의 삶이 단절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이 제도를 검토해보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중앙종회와 교육원, 김일엽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로 등록한 안산 화림선원.

심택사 · 화림선원 · 봉곡사, 녹색사찰 동참

7월 18일 불교환경연대와 협약

2018년부터 불교환경연대가 1회 용품 사용 금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녹색사찰에 3개 사찰이 추가로 동참했다.

서울 심택사 · 안산 화림선원 · 김천 봉곡사는 7월 18일 각각 경내에서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을 맺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각 사찰에 녹색사찰 의미와 실천방법을 설명하고, 녹색사찰 명패를 전달했다.

협약식에서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요즘 뉴스를 보며 기후위기를 보다 크게 실감해 녹색사찰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이 든다.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화림선원 주지 효탄 스님은 “죽을 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욕지족 해야 한다”며 “이제는 녹색사찰이 됐으니 물질 절약을 더욱 철저히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곡사 주지 현탁 스님은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며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녹색사찰에 참여했다”고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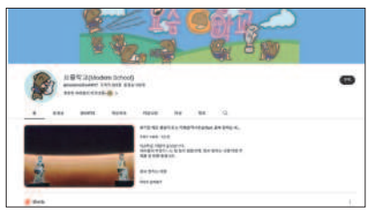


“아이들 손 닿는 모든 콘텐츠가 전법 마중물”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② 김권태 동대부중 교사

동대부중 ‘콘텐츠 연구회’ 지도
유튜브 채널 ‘요즘학교’에 소개
학생 스스로 시나리오·영상제작
“포교 활용 판짜는 게 내 역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유튜브채널 ‘요즘학교’


‘콘텐츠 연구회’에서 학생들과 김권태 교사가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이하 동대부중) 2층 진로활동실은 15명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로 가득 찬다.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소통과 공유를 통해 하나의 콘텐츠가 결과물로 나온다. 동대부중 동아리 ‘콘텐츠 연구회’의 활동 모습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선발된 김권태 교사는 ‘콘텐츠 연구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교사는 불교신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는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는 발심으로 지난해 ‘콘텐츠 연구회’ 동아리를 만들었다.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동대부중에서 10년 가까이 교법사 생활을 한 그는 대학원에서 전공한 상담을 활용, 지난해부터 보직을 변경해 진로 과목인 진로상담을 하고 있다. 담당 과목은 변경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그대로다.

‘콘텐츠 연구회’를 만들며 유튜브 채널 ‘요즘학교’를 개설한 것도 그가 말하는 확장의 한 방법이다. ‘요즘학교’에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비롯해 게임코딩, 애니메이션 강좌 등 다채로운 영상들이 빼곡하다. 모두 학생들이 기획하고 찍고 편집한 것들이다.

‘콘텐츠 연구회’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요즘학교’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달의 주제는 ‘불교’다. 3~4명씩 조를 이루어 치열한 논의 끝에 명상과, 불교 전래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 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시나리오를 작성, 영상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7월 말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된다.

10분 가량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자료수집부터 시나리오, 편집까지 한달여가량이 소요됐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에 학생들에게는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다. 업로드 날이 기대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의 결과물들이 영상 외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있다. 잡지와 자료집, 이모티콘 제작 등이 그것이다. 김 교사는 “콘텐츠의 영역이 무한대이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포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동아리와 채널을 시작했다”면서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 연말에는 자료집과 이모티콘 등으로도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 주제는 ‘광장시장’으로 잡았다. 아이들 스스로 정한 장소다. 김 교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면서 “광장시장에서 아이들이 먹어보고 싶다는 음식을 먹고 영상도 찍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활동으로 확장될 것이고 이 또한 전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건학위에 1000만원 기부

건학위 발전기금으로 활용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사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7월 19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건학위원회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지정학 학교법인 동국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위해 소중한 정재를 내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묵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곳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좋은 기회로 건학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동국대와 건학위원회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명 스님 “불광 화합 위해 1080일 기도 진력”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기자간담회
7월 22일, 1080일 참회기도 입재식
청년법회 8월·기본교육은 9월 재개
“사심없는 공심으로 불광 세우겠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내부 분규로 5년여간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 불광사가 ‘화합’을 염원하는 1080일 기도 돌입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최근 신임 주지로 임명된 동명 스님의 취임으로 불광사가 내홍을 딛고 대표적인 도심포교 사찰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로부터 지난 6월 16일 임명장을 받고 불광사 신임 주지로 취임한 동명 스님은 7월 17일 경내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불광사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동명 스님은 “불광사 내부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기도와 법회, 교육을 중심으로 사찰 고유의 역할에 집중, 내부 화합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신행중심지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명 스님은 1080일 동안 진행될 기도에 힘을 쏟는다. 1080일 기도에 대해 “참회와 성찰의 백팔일 참회를 열 번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한 동명 스님은 “참회를 통해 불광문도회와 불광가족이 쌓은 업장을 소멸하고 화합하는 사부대중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도 성취를 위해서 ‘원력’ ‘정당성’ ‘한마음’을 강조한 스님은 “오직 신도들이 평안하고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사찰은 신도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곳인만큼 불광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80일 기도는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내 보광당에서 봉행되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2026년 7월 5일까지 이어진다. 매일 주지 스님이 함께하는 새벽예불과 사시기도가 이어진다. 새벽기도는 발원문 낭독과 108배 참가, 사시기도에는 1080일 기도 발원문 낭독과 〈금강경〉 독경 등으로 진행된다.

불광사가 대표적인 도심포교 사찰인 만큼 법회운영에도 힘을 쏟는다. 토요법회에 중점을 둬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대중법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년법회 ‘금강청년회’를 재개, 8월 5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 재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가정법회, 경찰청 법회, 구치소 법회 등 외부 법회도 활성화해 명실공히 대표적인 도심포교 사찰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게 동명 스님의 목표다.

내부 분규로 인해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교육도 9월 2일 다시 시작한다. 3개월 과정의 불교기본교육은 물론, 대승불전연구소장 정운 스님의 〈금강경〉 강의, 심리명상전문가 김미정 박사의 행복해지는 마음습관-기도명상, 불광사 지도법사이자 영화감독 구담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영화 이야기 등이 개설된다. 내년 3월, 불교대학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동명 스님은 “지난 5년간 불광사가 바닥을 쳤다면 이제는 오르막길 오를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심없이 오직 불광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공심으로 1080기도를 실시 불광 화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알고 불광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불광 가르침을 일상에서부터 실천해나간다면 원력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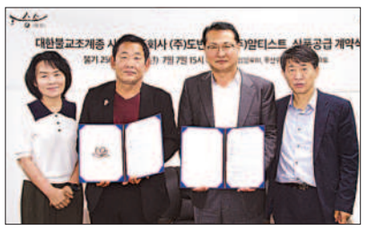
도반HC ‘승소’…비건 간편식 판매

식물성 핫도그 등 승소몰서 구매 가능

㈜도반HC 승소(이하 승소)가 7월 7일 친환경 대체식품업체 알티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용 먹거리를 위한 비건 식품 다양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승소는 콩, 밀, 해초, 곤약, 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대체식품 ‘고기 대신 식물성 구운 주먹밥, 식물성 참치’, 당분과 칼로리 걱정이 없는 ‘제로슈가 아이스티’ ‘설탕 대신 스테비아’, ’라이트 칼로리 잼’ 등을 입점, 사찰에서 다양한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지난 5월 출시한 사찰식 만두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사찰과 불자를 위한 제품을 다양화했다”면서 “친환경 대체식품 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사찰에 건강한 비건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비건 식품 구매는 ㈜도반HC 전국 온라인 통신판매인 승소몰(www.seungso.co.kr)에서 가능하다. 02)720-1786

임은호 기자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 현장교육

불교중앙박물관, 7월 12~13일 송광사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기관의 소장·관리자들에 대한 현장교육이 실시됐다.〈사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이 7월 12~13일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2023년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교육주제는 ‘불교조각의 이해 및 보존관리’로, 송광사성보박물관 김태형 학예연구실장이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성보박물관의 견학을 진행했으며, 최선주 중앙대 객원교수(前 국립경주박물관장)가 호남지역의 불교조각에 대한 이론을 강의했다.



신성민 기자

‘국가유산 체재’ 법안 통과…새 체재 정비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10건
7월 1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문화, 자연, 무형유산 체재로

한국 유·무형 문화유산들을 관리·보존·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가 확립됐다. 이에 따라 일본식 표기였던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돼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 상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며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개 법률 개정내용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 내용 외에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을 마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국제플란트치과그룹 MOU

7월 15일, 남양주 불암사서…회원 및 직원 구강건강 증진

치료비감면·생명나눔 확신 협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7월 15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국제플란트치과그룹(원장 정응모)과 지정의료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 및 직원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인 소식지에 국제플란트치과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원사업을 안내하며 회원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제플란트치과그룹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 및 직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상호 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과 직원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꾸준히 대외활동을 펼치면서 여러 기관과 교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응모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과 직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국제플란트치과그룹 정응모 원장,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전보현자 신도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김남철 부회장, 국제플란트치과그룹 송현기 이사, 오현주 실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로터스랜턴〉, e-뉴스레터로 만난다

기존 계간서 격월간 발행

20년 넘게 발행해온 조계종 영문 계간지 〈로터스랜턴〉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e-뉴스레터 형식으로 새 단장했다.

〈로터스랜턴〉은 1999년 봄, 1호를 발행하며 조계종단의 공식 영문 계간지로서 한국불교의 해외홍보에 이바지해왔다. 이런 〈로터스랜턴〉이 인쇄물이라는 오프라인의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e-뉴스레터로 불자들을 찾아간다.

e-뉴스레터는 기존 계간지보다 발행 주기를 줄여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구독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되며, 기존 종단소식과 해외교구소식뿐만 아니라 성보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불교문화 소개를 담았다. 여기에 종단에서 제작한 각종 영문동영상 링크를 첨부해 누구나 손쉽게 한국불교를 접할 수 있게 배려했다. 또한 뉴스레터 말미에는 간단한 경구를 실어 독자들이 조금씩 불교교리를 알아가도록 했다.

〈로터스랜턴〉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oreanbuddhism.net/)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메일(lotuslantern@buddhism.or.kr)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바다의 눈’으로 보니 뭇 생명이 위험했어요”

〈海眼〉

인터뷰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하는 **해안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본과 IAEA는 방사능 테러범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 또는 환경단체 집회에서나 볼 것 같은 꽤나 자극적인 문구.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서 있는 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스님이었다. 특정 시민단체에 소속된 것도 아닌, 그동안 별다른 환경운동에도 참여한 적 없는 비구니 해안 스님. 출가수행자로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화문 인근 일본대사관 앞에 서는 연유가 궁금했다. 그 배경은 7월 19일 시위 현장에서 스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들을 수 있었다.

낮 최고기온 33℃, 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 1시에 만난 해안 스님은 찜통더위 탓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돼 있었다. 시위를 시작한 지 어느덧 48일차. 얼마 전 기록적 폭우가 우리의 삶을 할퀸 날에도, 장마 이후 다시 찾아온 불볕더위에도 스님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나 혼자서 (방류를) 막을 순 없겠지만 나라도 거리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방관하는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하던 스님이 종로 한복판에 나서게 된 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오래 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돌봤던 해안 스님. 염색체 변이로 생긴 질환과 그에 따른 고통을 눈앞에서 바라봐야 했던 스님에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바다에 방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정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스님이지만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만큼 시민들이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왠지 시민들은 지치고 위축된 것 같았다. 이러다간 오염수 방류가 그대로 진행될 것만 같았다. 1인 시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스님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거리로 나왔다.

“지구에 인간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양생물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도 해당될까요? 바다에 사는 수많은 생명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먹이사슬이 바뀌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나지막한 스님의 목소리에서 굳은 심지가 엿보였다.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자타불이 정신. 스님에겐 바닷속 플랑크톤이나 땅 위의 인간이나 똑같이 동등한 생명이다. 살아가기 위해 인류가 어업을 하고 해산물을 먹지만, 그렇다고 더 뛰어난 생명이 될 순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수 방류를 그저 먹거리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현실도 안타까웠다.



빗속에서도 시위를 멈추지 않은 해안 스님.

해양생물 생존 위협하는 오염수
인간 기준 ‘안전’에 의문 들어
위기의식으로 시작한 1인 시위
폭우·폭염 속에도 계속 이어가

고래 그림 나누며 문제의식 공유
48일째 시위에 주위 호응도 커져
해안 스님 “더 강한 목소리 내야”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이든 음악을 하는 분이든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겁니다. 그런 소중한 자연이 파괴된다는 건 자연의 감성이 파괴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색연필로 고래 그림을 그려가며 말을 이어간 해안 스님. 스님은 본래 탱화를 그리는 불모(佛母)다. 시위에 나서기 전까지도 탱화 조성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작업을 중단했다. 그림 그리는 일보다 잘 살아가는 것, 조금이나마 나은 미래를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단순한 1인 시위가 아닌 개인의 능력을 살려 사람들에게 그림을 나눠주면 좋겠다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시위 현장에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고래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동물이자 지능이 높고 교감 능력도 뛰어난 생명체. 스님이 나눠준 손바닥만한 그림은 벌써 천 개가 넘었다.

1인 시위 초기, 직장인이 대다수인 광화문에서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이후 분위기가 변했다. 스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스님 덕분에 오염수 문제를 알게 됐다는 사람도 있었다. 도반스님들은 그림을 그리는 해안 스님 옆에서 오카리나 연주와 명상음악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얼마 전 인사동에서 공연을 곁들여 오염수 문제를 알렸을 땐 하루에만 350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한번은 곱게 생긴 어르신이 서명에 동참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은 아들 둘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삶을 잘못 산 것 같아 후회했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슬퍼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시위를 이어가면서 때로는 피곤함에 지치기도 하지만 점차 커져가는 시민들의 호응에 힘을 얻는다는 해안 스님. 그런 스님이 바라는 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다. 다만 개개인이 나서는 것을 넘어 환경운동가들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기대하는 스님이다.

“보통 환경단체나 활동가들이 일회성 시위나 기자회견으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알리는데, 더 세게 움직여야 합니다. 결과가 다 나오고 오염수가 방류된 뒤에 목소리 높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해안 스님은 1인 시위 47일째가 되던 지난 18일 시위 현장 앞을 오가던 다른 스님에게 처음으로 ‘언제까지 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힘들다고 해서 물러서면 겨우 피워낸 불씨가 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켜온 신념이 빛을 발한 셈이다. 당초 이달 말까지 두 달간의 1인 시위를 계획했던 스님은 그렇게 8월에도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인터뷰 도중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에 동참한 한 시민은 해안 스님의 활동을 ‘침묵의 순례길’이라고 표현했다. 마이크나 커다란 스피커를 쓰지 않으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뜻이었다. 이 시민은 “오히려 시끄러운 시위보다 묵직한 힘이 있는 것 같다”며 “제3자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오는 8월로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부. 이제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바다의 눈’ 해안(海眼)은 오늘도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정진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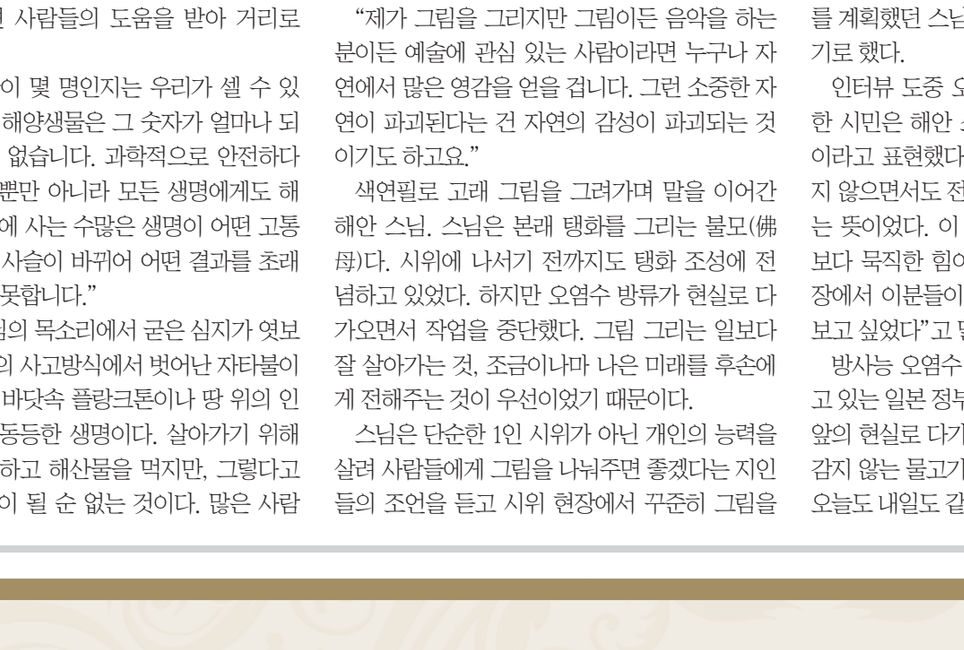


7월 19일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해안 스님. 이날로 시위 48일째를 맞은 스님은 당초 계획인 7월 말을 넘어 8월에도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지와 고래 그림.


시민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해안 스님.

법주 대륜 스님의
‘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 출시
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고객상담실 010-9049-0016 교재문의 010-6488-3761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월간 〈통도〉 500호 발간…잡지 포교 선도

중봉 성파 대종사 휘호 '이법위사(以法爲師)' 장식

1920년 발간한 〈축산보림〉 계승
500호에 발간호 당시 표지 재현
〈등불〉 〈보궁〉 〈통도〉 명칭변경
진우 스님 "포교 중흥기 이끌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최초 사찰 홍보지 〈축산보림(鷲山寶林)〉의 전통을 이어온 통도사 월간 사보 〈통도〉가 발간 500회를 맞았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7월 월간 〈통도〉를 통해 500호 발간을 기념하고, 창간호부터 이어온 역사를 고찰해 창간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500회를 기념하며 발간한 〈통도〉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휘호 '이법위사(以法爲師, 진리로써 스승을 삼아라)' 가 첫 장을 장식해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등불〉은 통도사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한 불교기록유산"이라며 "이에 앞서 1920년대 이미 발간한 〈축산보림〉, 〈조음〉을 통해 통도사는 선진화된 사찰 잡지의 효시를 선보였다. 불교 잡지는 시대를 앞서가며 민족계몽과 민중교화에 앞장서 왔으며 포교 중흥기를 이끌어 전법사의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전했다.

월간 〈통도〉는 1981년 10월 15일 〈등불〉로 창간되었고 이후 〈보궁〉과 〈통도〉 등 명칭을 바꾸며 역사를 이어왔다. 창간호의 발간사에 따르면 〈통도〉는 대중 포교를 위한 불법의 전령사 역할을 담당할 의지를 담고 있다.

발간사에는 "1500여 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 진수를 담은 문헌과 자료는 다분히 많으나, 인연이 없는 중생들은 그를 대할 기회가 없고, 설사 대한다 해도 지극히 난해한 한자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심오한 철학적 논리는 대중으로 하여금 거리감만 조성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조그마한 원고가 인연이 되어 불법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입문의 계기가 되고 귀의한 분들께 신심을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2호부터는 동화를 연재했고 오랫동안 대표 코너로 삼았다. 특징은 오직 한글로만 구성해 어린이들이 편히 읽고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대해 〈통도〉 편집위원회는 특집호를 구성하며 "현존하는 사찰 소식지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사보의 효시이자 동시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함께 호흡한 민족 기록물"이라며 "창간호 발기문은 불법 홍포지로 나아가야할 〈등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월간 〈통도〉는 1920년 1월 15일 통도사에서 발간한 최초의 불교종합잡지 〈축산보림〉이 효시다. 〈축산보림〉의 축산(鷲山)은 통도사를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이며 보림(寶林)은 보배의 숲을 의미한다. 〈통도〉 500호를 맞아 발간한 특집호 표지는 〈축산보림〉의 창간호 표지로 날아오른 독수리와 영축산이 배경으로 담겼다.



통도사가 월간 〈통도〉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특집호를 발간했다. 사진은 불교계 최초 불교종합잡지 〈축산보림〉 창간호 표지를 그대로 담아 500호를 기념한 〈통도〉 표지.

〈축산보림〉은 구하 스님이 대표로 발간한 불교종합잡지로 1919년 3·1운동 이후 이듬해 발간해 역사 속에서 민족계몽운동의 선구자로 앞장섰다. 〈축산보림〉은 특히 불교 잡지로 통도사 소식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담는 문화잡지 역할을 담당했다. 〈축산보림〉에는 〈조선문학사〉와 한국 최초 추리소설 〈혈가사〉 등을 담아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려 노력한 흔적이 있다.

〈통도〉 편집위는 "불교를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려 했던 오롯한 정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월간 〈통도〉에 유효하게 전승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령 500호를 넘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기록물을 함께 쓰고 있다. 이 기록 속에 많은 이들이 찾고자 하는 바가 있었고, 그 많은 인연들은 물음에 답하고자 부단히 원력을 쏟았으며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 전했다.

"경봉 대선사 인재양성 유지 계승"

경봉 스님 41주기 추모다례
경봉장학회, 장학금 지원도

한국불교 선지식을 대표하는 경봉 대선사의 열반을 기념하는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더불어 경봉 대선사의 불교인재 양성 염원을 잇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문장 원산)는 7월 14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선사 열반 제41주기 추모다례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을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문도대표 원명 대종사,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등 문도스님들이 동참했으며, 영축총림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다례재는 조계종 어장 원명 스님의 집전으로 △개식 △대중삼배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다 및 헌향 △경봉스님 육성법문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 △폐식 순으로 이어졌다.


7월 14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봉행된 경봉 대선사 열반 제41주기 추모다례재.

경봉장학회는 이날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통도사 재적스님 가운데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도운 스님, 선주 스님, 남수 스님을 비롯해 석사과정 7명, 학사과정 5명 등 총 15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 8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후원했으며, 통도사 보광선원,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비 800만원 등도 전달했다.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 은사이신 경봉 대선사의 유지를 잇고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합과 큰스님의 뜻을 이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봉 정석(鏡峰 靖錫, 1892~1982) 스님은 근현대의 고승으로 속명은 용국(鏞國), 호는 경봉(鏡峰), 시호는 원광(圓光)이다. 15세 되던 해 모친상을 겪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16세 때 양산 통도사의 성해(聖海) 선사를 찾아가 출가했다. 1927년에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서 법주 겸 설주를 맡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하던 중, 4일 만에 천지간에 오롯한 일원상(一圓相)이 나타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물(一物)에 얽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화두를 들어 정진하다가 1927년 11월 20일 새벽에 방안의 촛불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1935년 통도사 주지, 1941년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지금의 선학원) 이사장을 거쳐 1949년 4월에 다시 통도사 주지에 재임됐다. 1953년 극락호국선원 조실에 추대돼 설법과 선문답으로 법을 구하러 찾아오는 불자들을 지도했다. 1982년 7월 17일 법랍 75년, 세수 91세로 열반에 들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적운 스님, 유럽서 '선무도' 지도

프랑스 툴루즈서 세미나 개최



세계선무도총연맹 총재 적운 스님이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유럽을 순회하고 선무도 수련을 통한 포교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주지인 스님은 매년 유럽을 탐방하며 해외에서 선무도를 수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법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선무도 유럽세미나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진행됐으며 적운 스님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선무도 사범과 수련생 300여 명이 동참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으며, 선무도 승단 심사와 불교 강의, 선요가, 선명상 등 선무도 수련이 진행됐다. 적운 스님은 천태소지관과 선무도 수행을 주제로 법문했다. 마지막으로 수계식을 봉행해 외국인 수련생 110명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세미나 이후 적운 스님은 유럽전통태권도연합회(TTU)가 주최한 태권도 썸머페스티벌에 그랜드 마스터(Grand Mster, 태권도9단) 자격으로 참가해 불교와 선무도 철학에 대해 강의했으며 선무도, 선요가, 참선 등을 지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포교사단, 범어사 대중공양 올려

법화경 독송 수행 회향 일환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7월 14일 범어사 경내에서 '2023년 하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 대중공양' 을 진행했다.〈사진〉 부산 포교사단은 매년 동안거와 하안거를 지내며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행기간 동안 모은 보시금을 대중공양 하고 있다. 포교사단은 하안거를 맞아 80일 동안 〈법화경〉 독송을 이어왔으며, 부산 포교사단 35개팀 전원이 참여해 〈법화경〉 전권을 릴레이 독송했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단장을 비롯해 정분남 자문위원 등 임원단 10여 명이 동참했으며, 공양은 여름을 맞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메밀국수와 꼬마김밥, 유부초밥, 수박 등 다채로운 메뉴로 100인분을 마련했다.

송재린 단장은 "하안거 기간 연이은 장마로 모두가 지치고 힘겨운 시간이었다"며 "수행하는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마음과 함께 몸이 건강한 시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수행 공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부산 포교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호복지관,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독거어르신 등 소외이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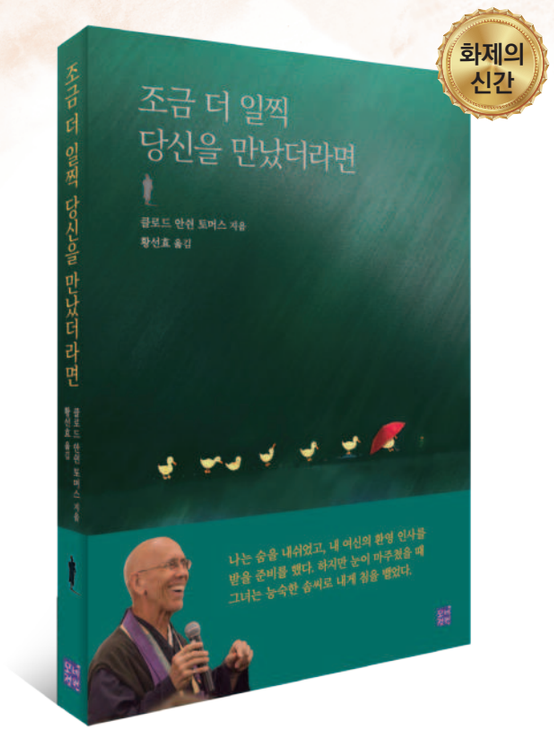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7월 15일 복지관 관내 일원에서 '효도삼계탕 DAY' 행사를 진행했다. 나눔에는 주식회사 한탑이 775만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사진〉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이번 행사에도 어김없이 도움을 주신 류원기 한탑 회장님과 하상경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상경 한탑 대표이사는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게 기력 보충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한탑이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은해 용호종합복지관장은 "한탑의 후원과 더불어 여러 봉사자,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며 "모두 이번 여름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김해 청소년 포교, 우리가 책임진다

7월 15일 김해파라미타 출범
윤수정 회장 취임…본격 활동
송산스님 "청소년 교육 역점"
문화재지킴이 발대식도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불인사는 7월 15일 경내 3층 법당에서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출범식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김해 지역 청소년 포교를 책임질 청소년 포교단체가 결성됐다.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는 7월 15일 경내 3층 법당에서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출범식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문화재지킴이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김해파라미타)는 불인사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불인사는 10년 전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해 여러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해 이날 출범식을 열게 됐다. 김해파라미타 총재는 불인사 주지 송산 스님이 맡았으며, 윤수정 초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김해파라미타 총재 송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김해 지역 청소년 포교를 보다 내실있고 전문화하기 위해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든 청소년 회원들이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불교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수정 김해파라미타 초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재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 주변정화활동 및 모니터링 답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면서 "또한, 청소년 심신성장활동, 자기계발 활동, 국제교류 협력과 청소년명상, 학부모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 역량을 십분 발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내외빈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율하선원 주지 석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청소년들을 많이 답답하게 하고 있지만 오늘 김해파라미타 출범은 청소년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며 "총재 송산 스님을 도와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 포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김해파라미타 출범을 축하한다"며 "청소년들이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지혜가 샘솟는 자기 공부와 자비심이 넘치는 파라미타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경숙 지도교사에게 우수지도자 표창이 전달됐으며, 주상정(동명고)·주형철(동명중)·이지윤(월산중)·이시운(관동초) 학생에게 각각 우수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송산 스님, 안국선원 김해포교당 율하선원 주지 석산 스님을 비롯해 김정호 국회의원, 김재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성규종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민도 연꽃처럼 청아하길"

(사)우리문화연구원, 전주 연꽃문화축제 개최

코로나로 중단됐던 전주연꽃문화축제가 3년 만에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 일원, 금산사 주지)는 7월 15~16일 1박 2일 동안 전국적인 연꽃 명소로 꼽히고 있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2023 전주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특별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우리문화연구원 대표 일원 스님(금산사 주지)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 금산사 재무국장 제환 스님, 남고사 주지 석초 스님,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성주 국회의원,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성규 전주시의원 등 지역 스님들과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 연꽃축제는 오전부터 국악공연, 통기타 연주 등의 각종 공연이 이어졌으며 수묵화 그리기, 합장주 만들기, 종이 연꽃 만들기, 다도체험 등 불교전통문화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시민노래자랑 열렸으며, 가수 소리새, 후니용이 등이 출연해 흥겨운 공연도 선사했다.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전주 덕진연못은 후백제대에 축조된 후 기우제를 지내는 등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전주를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전북도민의 염원이 이어져 온 곳"이라며 "전주 연꽃문화 축제를 맞아 연꽃의 청아함처럼 전라북도민의 마음도 항상 평안하고 청아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연꽃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라며 "전주 덕진공원의 연꽃처럼 항상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주 덕진연못은 전주시민의 자랑거리이자 전주 팔경 중 하나"며 "옛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전주 덕진연못에서 전주를 찾는 모근 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종교계 "日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광주종교인평화회의, 7월 17일 '종교계 공동선언'

광주종교인평화회의(대표 도성)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광주전남공동행동은 7월 1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광주전남 종교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 등은 7월 17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광주전남 종교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종교인들은 이윤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기원하며,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해 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는 한국기독교연합회, 광주불교연합회, 천주교광주전남교구, 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광주교구, 전국유도회광주향교로 구성돼 있다.

광주종교인평화회의 대표 및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우리의 먹거리를 포함해 생활 속에서 방사능에 피폭되는 굉장히 위험한 보건의료의 위기"라며 "국가는 이런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 해청 스님도 발언을 통해 "일본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육상에 저장소를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137만톤의 오염수를 30년 동안 하루에 125통씩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한다"며 "바다는 우리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향후 인류의 대쟁앙의 시작이자 죽음의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철회돼야 하고,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시민 힐링공간으로 만들겠다"

창원 성주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 봉행

연건평 492.91㎡ 규모 조성
조사전 신축 등도 함께 추진



창원 성주사는 7월 13일 신축부지에서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가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7월 13일 템플스테이 체험관 신축부지에서 봉행된 기공식은 개식, 삼귀의, 경과보고, 공사개요,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테이프 컷팅, 시삽, 기념촬영,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창원 성주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1층은 317.79㎡(96.3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2층은 175.12㎡(53평)의 전통 한옥 양식구조로 연건평은 492.91㎡(150평) 규모이다.

성주사 템플스테이관은 1층은 템플스테이 관리동으로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방 1개와 다실, 종무실, 종무원실 2개, 기타 서비스실이 들어서며 2층은 템플스테이 숙박동으로 커넥팅 룸으로 구성된 VIP실 2개, 다실 2개, 일반 객실 3개, 기타 서비스실로 구성됐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과 불자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겹 한 겹 저희가 쌓아서,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스며들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불교 문화의 선지식과 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관 신축과 함께 성주사는 부도전 정비공사, 관음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공사, 조사전 신축 등 다양한 불사들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는 가야불교교육관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논산 안심정사, 수해 주민에 구호물품 지원

대피구호소에 식료품 전달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가 7월 15일 폭우가 쏟아진 논산지역 수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논산 광석초등학교를 방문해 긴급물품을 지원했다.〈사진〉

광석초등학교 대피소 수재민들에게 전달된 구호물품은 안심정사 만선공덕회의 후원으로 총 200만 원 상당의 컵라면, 우유, 간식류, 드링크제 등 당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됐다.

이날 전달한 구호 물품은 논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광석초등학교 강당 등 각 지역에 분산해 있는 수해피해 주민에게 전달했다.

법안 스님은 "이번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며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서로 서로 도와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스님은 논산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매월 꾸준하게 사랑의 쌀 기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또한 소년원 재소자 지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해외포교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스님이 소년원 교정위원으로

日 지센지 20대 수행자 묘쇼 스님
어두웠던 자신 과거 경험 거울삼아
면담 등 소년범죄자 사회복귀 힘써
"어려울 때 믿어주는 존재 될 것"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최연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카타오카 묘쇼스님.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교 거부, 끝내 은둔형 외톨이까지 경험했던 한 비구니 스님이 소년원 교정위원으로 나섰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거울삼아 소년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에 힘을 더하겠다고 다짐하는 스님. 지난 7월 14일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카타오카 묘쇼 스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약 500여 년 전 카가와(香川)현에 건립된 정토진종 사찰 지센지(慈泉寺). 현재 지센지에서 원주 소임을 맡고 있는 카타오카 묘쇼 스님은 아직 20대의 젊은 수행자다. 스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 단체행동에 위화감을 느꼈다"면서 "5학년부터는 등교를 거부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학교에 나가는 것이 어려웠고, 결국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을 시작했다"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전했다. 스님은 "주변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원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 괴로웠다"면서 "당시 지센지의 주지이자 할아버지였던 와마로 스님이 '기껏 학교를 안 가는데, 놀지 않으면 아깝다'며 힘들어하는 나를 그대로 받아 주면서 서서히 일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스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기 위해 교토의 미술대학으로 진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할아버지 같은 스님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다. 곧 미술대학을 중퇴하고 불교계 학교로 진학해 출가하게 됐다.

5년 전부터 종단에서 공식 포교사 자격을 받아 SNS와 다양한 행사에서 불교를 전하던 스님은 "젊은 층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교회사(教誨師)'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다. 교회사란 종교계 교정위원으로 일본 전국에 약 1800명이 있으며 평균 연령대는 60대이다. 스님은 "끝내 비행의 길에 들어선 젊은이들과, 학창시절 등교거부로 힘들었던 나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며 교회사에 자원한 계기를 전했다.

묘쇼 스님은 지난 4월, 카가와현 유일의 여자 소년원인 마루가메 소녀의 집에서 '교회사(教誨師)'로 위촉됐다. 소년원 측은 "현재 전국에서 여성 교회사는 단 70명 정도로, 올해 28세인 묘쇼 스님은 현재 일본 최연소 교회사"라고 밝혔다.

6월부터 월 1회 정도 소년원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묘쇼 스님은 특기인 일러스트를 살려, 소녀가 일상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하며 성장해 가는 만화를 제작해 수감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스님이 전하는 행복과 일상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스님은 "아마도 내가 다른 교회사들보다는 가까운 나이대라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웃어 보였다. 현재 스님은 수감 청소년의 희망이 있을 시 개별면담 등을 통해 교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묘쇼 스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가 있는 것은 큰 지지가 된다. 나 역시 나를 믿어준 할아버지에게 구해진 것처럼, 나 역시 사람을 구해주는 이가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우란분절 행사 봉행

화교 공동체 · 종교계 함께 진행
불교천도재 · 도교 천혼제 실시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우란분절에 재를 모시는 모습. 사진출처=더스타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권의 큰 명절인 우란분절. 화교를 중심으로 중국 대승불교가 널리 퍼진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란분절 행사가 봉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5일, 말레이시아의 '더 스타'는 음력달력에 맞춰 봉행될 예정인 행사들에 대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기념공원인 완푸산장 묘원은 "오는 음력 7월을 맞이해 약 한 달간 선조와 고인들에 효를 다하고, 산 자들의 공덕을 위한 우란분절 행사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완푸산장 CEO 토미 치엥은 "우란분절은 흔히 영어로 '아귀를 위한 축제(Hungry Ghost Festival)'라고 한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재를 베풀어 아귀로 있을지 모르는 무주고혼의 영가들과 선조들에게 먹을 것과 가르침을 보시하기 때문"이라며 화교가 아닌 말레이시아 사회에 우란분절을 소개했다.

그는 "이 법요는 죽은 영가들 뿐만 아니라, 재를 베풀고 공양을 올리는 산 자들에게도 공덕을 쌓는 기회가 되며, 이것은 모두가 끝내 성불로 가기 위한 방편이며, 화교 공동체의 문화적 결속과 전승에도 중요한 행사"라며 행사와 법요의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 우란분절 법요는 불교식의 천도재뿐만 아니라, 도교식의 천혼제도 함께 봉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완푸산장 측은 이번 우란분절 법요에 대해 "불가와 도가가 함께 봉행하는 법요는 영가에게는 더 나은 생으로 향하는 길과 공덕을 베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1001불 모신 사찰, 건축법 위반으로 존폐 위기

美 법원 측 건축법 위반 판결에
"종교·인종 차별·인권 유린" 반발


위법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캘리포니아 1001불전. 사진출처=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난 7월 1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여러 매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캘리포니아 한 사찰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법건축물 철거 판결 소식을 전했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1,001불전이 미허가 건축물 및 건축법 위반에 따라 위법 건축물 철거 판결을 내렸다. 관련 공무원은 "2018년에 설립자 '마오란 리씨'에게 '적절한 구조 및 기초 시스템 없이 건설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부분적 또는 완전한 붕괴 위험이 있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2021년 해당 사원을 개인적으로 종교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1001불전 사원 및 일부 건물이 화재 위험이 있으며 오폐수 처리 시설 미흡, 환기, 조명 위생시설 및 단열재가 불충분해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001불전은 설립자 마오란 리 씨가 2010년 12만 평의 부동산을 매입, 1001불전 및 여러 건축불을 개보수하면서 시작됐다. 사원은 오직 개인 예불을 위해 사용됐지만 시의 요구 사항에 맞춰 개보수를 진행했다. 허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않았다. 2019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참석한 회의에서는 담당 부국장이 "부처님을 방패 삼았다" "부처님께선 이 건축물을 허가하셨는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고소하기도 했다. 마오란 리 씨는 "현재 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인 종교 시설의 많은 부분을 철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종교, 성별 및 인종적 차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씨의 변호사 알리토는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하며 일부 백인 이웃이 미허가 건축물을 유지하는데 반해 의뢰인의 사유 재산을 다루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과거 논란이 된 건물 외 리씨의 주거지를 수색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의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수년간 지속된 분쟁에서 프리몬트 시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인권 유린 및 감정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리씨의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프리몬트 시의 건축법 차별 적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이웃 중 리씨의 건축 규모와 비슷한 것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적법한 건물이라면 '종교를 행사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 알리토는 "법원이 리씨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 전했다.

한편, 최근 미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편 배달부에게 노동을 강요한 사건에 배달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며 동성커플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기후변화로 실크로드 불교 유적 훼손 가속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연구 결과 발표


기후변화로 인해 훼손된 진타사 동굴 벽화. 박리 되어 벽화 기저층이 노출되었다. 사진출처=그린피스

중국 북서부의 기후 변화로 고대 실크로드 동굴 벽화와 조각상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16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고대 실크로드의 불교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리피스'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간쑤성은 실크로드의 통로로 해발고도가 높고 내륙에 위치해 기후는 춥고 건조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사막지역의 강우량이 증가해 습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갑작스러운 홍수로 동굴이 침수되어 수 세기 동안 조성된 불교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간쑤성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동시에 총 강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여름 강우량은 증가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둔황 석굴(막고굴)도 훼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리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빈번하고 집중적인 폭우와 홍수로 둔황 석굴의 습도가 높아져 4세기 조성된 동굴 벽화 염료의 결정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리 및 염분 축적을 촉진하여 벽화가 빠른 속도로 벗겨지고 있다. 둔황 석굴의 85번 동굴은 이미 광범위한 박리 피해를 입었다.

둔황 석굴에서 약 500km 떨어진 진타 사원 동굴은 작년 8월에 내린 비로 대기 습도가 93%에 달해 불교 유적의 분해, 부패 및 침식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동굴 중간 기둥에 0.3~0.5cm의 균열이 생겨 물이 스며들고 있다. 누수로 인해 천장 벽화에 금이 갔으며 동굴 벽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며 "특히 둔황 석굴에서 이 치명적인 훼손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연구진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불법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승불교 입문서
입보리행론 요해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I시대, ‘불교 자비윤리’ 필요하다”

‘인공지능’ 주제 불교학계 논의 잇달아

허남결, 반야冊 학술대회에서
AI기반 불교 자비윤리 강조해
올해 교수불자대회 ‘AI’ 다뤄
〈금강경〉 기반 윤리관 제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11월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ChatGPT)’는 인공지능 시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메타 등 거대 IT회사에서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추진키로 하며 잇달아 개발에 들어갔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성경을 활용한 챗봇인 ‘성경GPT’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학계의 논의들이 잇달아 이뤄졌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7월 2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AI 축복인가 재앙인가- AI시대의 명암과 불교적 진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인간의 미래, 불교의 미래-인공지능의 발전과 자비윤리의 요청’을 통해 AI시대에 기반한 불교 윤리를 제안했다.

허 교수는 피터 D. 허쇽(Peter D. Hershock)의 저서 〈불교와 지능 기술-보다 인간적인 미래를 위하여(2021)〉을 소개하고 AI가 제기한 핵심적인 도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허쇽이 제시하는 불교 AI 윤리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적 공존의 윤리’다. 특히, 대승의 보살도 사상과 육바라밀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존재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윤리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은 과학과 영성 사이를 지혜롭게 연결하는 인문학적 사유능력을 요구하며, 불교가 이 부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허 교수는 “불교는 자연세계와 정신세계에 이어 인간세계를 서로 융복합할 수 있는 우주적 이론체계인 ‘연기설’이 있다”면서 “이런 관념을 구현한 불교적 AI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과학과 영성을 결합한 고통치유형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와 자비적 행동은 불교 AI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적 공존의 지혜는 스탠포드대 인간중심지능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나 하버드대 ‘임베디드 에틱스 프로그램(Embedded Ethics Progarm)’의 설립 취지와 연구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면서 “불교는 변함없이 인간과 기계와 그 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고 이념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수 불자들의 신행모임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7월 3~5일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와 사부대중의 길’을 주제로 ‘2023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수불자대회에서 교수 불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나아갈 길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했다.

특히, 김유리 동국대 종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조계종 前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인공지능시대, 불교 교육 방향성 고찰을 위한 시론적 연구’에서 〈금강경〉에 기반한 인공지능 윤리관 구축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저자들은 “〈금강경〉은 새로운 시대의 산물인 인공지능을 어떤 존재로 인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한다”면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적 준거를 탈(脫)인본주의적으로 새롭게 탐색하려는 이론적 접근 중 하나가 바로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인데, 이는 정신과 물질의 일원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적(생태적) 산물과 인간(사회), 그리고 기술적 산물(기계, 인공지능)들이 모두 평등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는 수평적 존재론(flatontology)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존을 위해선 지구상의 모든 물질과 존재들이 네트워크적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포스트휴머니즘’은 〈금강경〉에서 유기적 연기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나와 세상의 존재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주변인들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은 〈금강경〉을 통해서 충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통기법 만난 연꽃, 새로 피어나다

갤러리 한옥, 서혜진 개인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회화 · 복식 기법 콜라보 눈길



서혜진 원장의 ‘연화화생도(蓮花化生圖)’, 105×70(cm), 면바탕 분채 금분 비단장식.

전통 불교회화에 새로운 기법들을 콜라보한 연꽃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

갤러리 한옥은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서혜진 승담전통미술연구원장의 개인전 ‘연꽃,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회화 전공자로서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한 서혜진 원장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담겨 있다.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에 대한 고민은 판본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전시 작품 중 앵무새가 석가모니에게 설법을 청한다는 ‘앵무청불’이나, 석가모니가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증명하는 ‘증명설주’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서혜진 원장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은 양주 불암사의 목판으로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기술한 것인데, 목판의 특성상 다소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회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초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극락으로 가는 과정과 염원을 그린 ‘용선접인도’나, ‘연화화생’은 복잡한 경구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애착이 컸다”고 밝혔다. 기존 불교회화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고심은 전통복식 기법의 응용으로 이어졌다. 여러 작품들에 비단을 삼각형으로 접어 동그랗게 바느질한 연꽃 모티프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잣물림’이라고 불리는 기법이다. 마치 뾰족한 잣송이가 서로 물려있듯 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복 등의 꾸밈에 쓰인다.

서혜진 원장은 “전통복식의 잣물림 기법과 전통회화 기법을 조화롭게 구성함으로서 평면적인 회화에 입체적인 연꽃 장식을 더하고 싶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회화의 전통과 새로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상 담은 사진들, 역사가 되다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집 발간

이창호 사진작가가 기증한
사진 2만여점 선별해 묶어
불교 관련 사진들도 다수



이창호 사진작가가 촬영한 ‘통도사 운판’.

‘일상적’이란 날마다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흔한 것들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뒤로 밀려 더 이상 흔하지 않은 것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집마다 설치된 세탁기가 당연한 오늘날, 마을 공동 빨래터란 누구에게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풍경일 수 있다. 골목 어귀에서 뛰놀던 동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방과후에 다녀야 하는 각종 학원에 넘겨준 지 오래다. 설과 추석이 되면 붉은 플라스틱 함지를 들고 길게 줄을 늘어서던 방앗간의 수증기 가득한 바쁜 움직임도, 홍콩 영화 마니아의 기대를 자극하던 담벼락의 단관 극장 영화 포스터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유 · 무형 문화유산을 보존 · 계승하며 살아온 불교의 경우 ‘잘 마모되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복식 등의 일상에서 미묘한 변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현대에서는 주로 사진으로 기록됐고, 이는 곧 역사가 된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민속아카이브 자료의 가치를 조명하고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아카이브 자료집 〈일상, 아카이브가 되다〉를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이창호 사진작가가 기증한 2만 4501점의 사진 가운데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우리 주변에 소소하지만 사라져가는 일상을 포착한 155점을 선별해 수록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담겨있지는 않지만 아카이브화 된 기증 사진 중에는 불교 관련 사진도 다수 존재한다. 종교 신앙 카테고리에 포함된 4000여 점의 사진 중 1120점이 불교 사찰, 의식, 예불 등을 담아내고 있다.

기증자인 이창호는 오랫동안 출판사진가로 활동하면서 일상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천착하였고, 민속문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고 활동을 이어간 사진가다.

〈일상, 아카이브가 되다〉의 원문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발간자료원문검색〉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고, 책에 소개되지 않은 기증 사진은 〈민속아카이브 검색〉과 〈민속아카이브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작은 빛 하나가
온 하늘을 밝힐 순 없어도…
작은 시작이 되어 줄 거야!”

우리 아이 인성교육 19



칵 예 글
이자벨 아르스노 그림
황유진 옮김
32쪽 | 14,000원

한 편의 시와 같은 글,
잔잔한 울림이 있는 번역,
볼로냐 라가치 상 수상 작가의
마음 따뜻해지는 그림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그림책!

“아이가 마주한 어둠이 어떤 것이든, 붙들 수 있는 작은 희망은 늘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아이의 내면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 주는 다정한 안내서.” —커커스 리뷰

“이 책은 우리를 응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있는 힘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믿으며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고.” —퍼블리셔스 위클리



우리 아이 인성교육 (전 19권)
아이 마음의 선한 씨앗에 물을 주는 그림책

1 화가 났어요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문태준 옮김 | 40쪽 | 12,000원

2 호호야, 그게 정말이야!
바이런 케이티 글 | 한스 빌헬름 그림
고정욱 옮김 | 32쪽 | 12,000원

3 주문을 걸어봐!
루이스 L. 헤이 외 글 | 마누엘라 슈워츠 그림
고정욱 옮김 | 32쪽 | 13,000원

4 천천히 걷다 보면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문태준 옮김 | 40쪽 | 11,000원

5 마법의 가면
스테판 세르방 글 | 일리아 그린 그림
이경혜 옮김 | 38쪽 | 10,000원

6 회색 아이
루이스 파레 글 | 구스티 그림
남진희 옮김 | 42쪽 | 11,000원

7 평화를 들려줄게
웬디 앤더슨 홀퍼린 글·그림 | 최성현 옮김
40쪽 | 11,000원

8 고래가 그물에 걸렸어요
로버트 버레이 글 | 웬델 마이너 그림
이정모 옮김 | 36쪽 | 13,000원

9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
기타무라 사토시 글·그림 | 배주영 옮김
33쪽 | 13,000원

10 소리산책
폴 쇼워스 글 | 알리키 브란덴베르크 그림
문혜진 옮김 | 33쪽 | 12,000원

11 놀이터는 내 거야
조셉 쿼플러 글·그림 | 권이진 옮김
42쪽 | 12,000원

12 무슨 벽일까?
존 에이지 글·그림 | 권이진 옮김
40쪽 | 12,000원

13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개 있어요?
존 에이지 글·그림 | 권이진 옮김
40쪽 | 12,000원

14 나는 귀신
고정순 글·그림 | 38쪽 | 13,000원

15 가만히 기울이면
조 로링 피셔 글·그림 | 나태주 옮김
30쪽 | 12,000원

16 너의 우주를 들어 줄게
A.C. 피츠패트릭 글 | 에리카 메디나 그림
권이진 옮김 | 40쪽 | 12,000원

17 나나가 집으로 돌아온 날
킴 톰식 글 | 해들리 후퍼 그림
김산하 옮김 | 66쪽 | 14,000원

18 오늘부터 다시 친구
나마 벤지만 글·그림 | 김세실 옮김
40쪽 | 14,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9~7/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개설-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초기불교입문: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2	불교문화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관세음보살42수주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운주사
3	법화경(하) 이것이 불교다	무비	불광출판사	8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불교신문사
4	해탈장엄론(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감뽀빠	운주사	9	상윳따니까야(1)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보리도차제광론2	쫑카파	나란다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책세상

"부처님 가르침 요체 담은 법화삼부경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상체계"



법화삼부경 강설 1~6권
구선 강설 / 도서출판 연화 펴냄
각권 3만원

열반 앞둔 부처님이 설한 경전
평생 설법 요약된 요체들 수록
"향후 인류 나아갈 방향 제시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선 스님은?
출가 후 얻은 진리와 깨달음을 다양한 사상서에 담아 출간해 왔다. 이를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저서로는 〈관(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관(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관(觀), 십이연기와 천부경〉 〈관(觀), 한글 자음 원리〉 〈한글문자원리〉 등이 있다. 현재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이며, 서울에서 선나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화삼부경' 은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보현보살행법경〉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경전은 법화부 경전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설하신 경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삼부경' 은 부처님의 평생의 설법이 요약돼 그 요체들이 담겼다.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로서 수행과 경전 강설에 매진하고 있는 구선 스님이 〈법화삼부경 강설〉 전 6권을 발간했다. 구선 스님은 7월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법화삼부경' 이 불교교육 체계 확립과 새로운 기술 문명을 위해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구선 스님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량의경〉에는 처음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견성오도법과 해탈도법, 보살도법과 등각도법이 그것으로, 부처님께서는 〈무량의경〉을 통해서 '무량의삼매' 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는 게 구선 스님의 설명이다.

구선 스님은 "〈묘법연화경〉에서는 묘각도를 이루는 방법과 묘각도 이후에 진행되는 수행 절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그러면서 법화삼매(法華三昧)와 구족색신삼매(具足 色身三昧),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와 육근원통법(六根圓通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묘법연화경〉에서 제시하는 법화삼매(法華三昧)는 육념처관(六念處觀)으로 육근청정(六根淸淨)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중생의 번뇌를 없애지 않고 육근의 청정함으로 생멸수행과 진여행을 병행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육념처관' 으로 육근청정을 이루게 되면 보살도 6지 현전지를 체득하게 되고 육근원통을 이루게 되면 보살도 9지 선혜지를 성취한 것이라고 강설했다

'법화삼부경' 의 세 번째 경전인 〈보현보살행법경〉에는 육근청정을 성취한 행자가 육근원통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다는 게 구선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육근원통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 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오회법과 육념처관법 △억불법과 심신해상법 △동법계 수행이다. 오회(五悔)란 권청, 참회, 수희, 회향, 발원을 말한다.

구선 스님은 "〈보현보살행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21일 동안 오회의 절차대로 하루 여섯 번씩 수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육근원통을 이루게 된다고 설하셨다"면서 "〈보현보살행법경〉에서 말씀하신 육근원통법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희유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법화삼부경' 에서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절차 이외에도 놀라운 기술문명에 대한 가르침들이 설해져 있다는 게 구선 스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선 스님은 " '법화삼부경' 에는 물질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면서 "생명의 시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그렇게 시작된 생명이 현재의 세포 구조물로 이뤄진 육체를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내력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 '법화삼부경' 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상체계이며 기술문서(技術文書)"라며 "이 경전으로 인해 향후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고 새로운 기술문명이 태동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韓불교 대표 의식 작법 '총망라'



영산재·각배재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펴냄
2만5000원



예수재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펴냄
2만5000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의식인 영산재와 예수재 작법을 망라한 의식집이 발간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해사 스님은 최근 〈영산재 · 각배재의범〉과 〈예수재의범〉을 편찬 · 발간했다.

〈영산재 · 각배재의범〉은 각종 천도재와 49재 등에 설시되는 영산재와 각배재를 여법하게 설행하기 위한 의식 절차 및 의식문을 종합 정리한 의식집이다. 해사 스님은 이 책에 실린 순서와 내용 그대로 진행하면 여법한 의식이 되도록 편집했다.

이 책은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까지 참고하여 정리한, 영산재와 각배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의 결정판이다.

본문 중간중간 들어 있는 간단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자가 참고사항을 적은 것으로, 원활한 의식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생전예수재' 는 말 그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 를 뜻하는데, '자신의 사후를 위해 살아 있을 때 치르는 의례' 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특히 윤달이 드는 해에 사찰에서 성대하게 설행되며, 수륙재 및 영산재와 더불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의식 중 하나다.

해사 스님이 편찬한 〈예수재의범〉은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6)를 저본으로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까지 참고하여 종합 정리했다.

이 책은 예수재 시 시련 · 대령 · 관욕 · 신중작법 · 괘불이운 · 설주이운 등은 재의 규모나 방법에 따라 설행(設行)할 수도 있으므로 함께 수록했으며, 시식(施食)은 보통 전시식(奠施食)을 거행하나 관음시식(觀音施食)으로도 거행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의식문을 첨가했다. 또한 본문 중간중간 들어 있는 간단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자가 참고사항을 적은 것으로, 원활한 의식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성민 기자

AI 대한 철학 · 공학자 사유 '콜라보'



이진경×장병탁 선을넘는인공지능
이진경, 장병탁, 김재아 지음
김영사 펴냄 / 1만7800원

2022년 11월 공개된 챗GPT(ChatGPT)는 그동안 어떤 인공지능도 보여주지 못했던 미래를 인간들에게 보여줬다. 내가 던진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내는 인공지능을 보고 있자면, 답변 내용의 수준을 차제하더라도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다가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디스토피아적 상상도 하게 된다.

이를 보면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과 유사할수록 거부감이 커지다가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다시 호감을 느낀다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의 어느 지점을 현재 지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불교철학 관련 저술로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진경 서울과기대 교수와 한국 AI 전문가 정병탁 서울대 교수가 인공지능 관련 대담집을 내놨다. 이들은 2년여 동안 15차례 만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적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는 김재아 소설가와 출판편집자도 참여했다.

이들이 보여주는 지적 사유 콜라보의 여정이 쉽게 읽힐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곱씹으며 책장을 넘길만 한다. 특히 뇌중심주의 ·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이들의 대담은 뇌 못지않게 신체도 인지하고 기억하며 때로는 뇌의 사고 방향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최신 과학에 토대를 둬 눈길을 끈다.

특히 이진경 교수는 존 설의 '중국어 방 논증' 을 비판하며 이때 적용된 인간중심적인 '이해' 의 의미를 낱낱이 해체한다. 나아가 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능' '신체' '감정' '자아' 등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되짚어보고, 인간은 물론 동물, 식물, 사물(기계)에게까지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재정의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환기하고 사고와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나아가 사물이 자기 능력을 모두 발휘할 때까지 계속 생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물과의 우정' 을 주장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의 지속 가능성' 시대에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에게 가장 어려운 예술 영역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등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물음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이 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

[특집] 여름휴가 때 읽을 만한 불서 6선

文士스님들의 글로 '더위 타파'

척척박사 스님의 공부를 잘하는 법

[최강의 공부 명상법]
글 자현 · 그림 김재일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끝없는 경쟁 속에 우리는 매순간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 공부 의욕을 잃기도 하고, 환경이 열악해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머리 나쁨'을 자처하는 자현 스님이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명상법을 안내한다.

현실에서 즉각 통하는 최강의 공부 명상법 7가지. 첫째, 노력하면 된다는 허상을 깨트려라.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둘째, 자기 자신과 충돌하지 마라. 공부를 방해하는 내면의 안티를 설득하라. 셋째, 암



기력은 공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느낌을 떠올리는 이미지 기억법을 사용하라. 넷째, 잡념을 양성화해 내 편으로 만들어라. 다섯째, 공부 잘하는 복권은 '자존감'이다.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복권이다. 여섯째, 긍정은 가장 값싼 아편일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정을 통한 자신감이다. 일곱째,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 마라톤에서 초반 스타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머리 나쁜 나도 하는데,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 박사학위를 6개나 갖고도 머리가 나쁘다는 스님의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명상법 아닐까?

윤호섭 기자

카메라 들고 산사로! 무여 스님 사찰 여행

[우리 함께 떠나요]
무여 지음
담앤북스 / 1만6800원

'불교는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까? 이름난 사찰에 가도 한자로 적힌 현판과 뜻을 알기 어려운 안내판 때문에 한 바퀴 휙 둘러보는 것으로 관람을 마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주문(一柱門)이라면서 왜 기둥이 두 개인지, 범종각에 있는 목어와 운판은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 불상과 보살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적멸보궁에는 왜 불상이 없는 것인지 등등. 누구에게도 선뜻 물어보기 힘들었던 궁금증을 풀어주는 영상이 있다. 바로 유튜브 채널 '무여 스님TV'의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다.

5만여 명의 구독자와 41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



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 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유튜버 무여 스님이 4년간 여행한 120여 사찰 중 각 계절에 어울리는 32곳을 엄선, 창건부터 오늘날까지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촬영한 100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또 영상에 담지 못했던 선방(禪房)의 내밀한 모습과 학인 시절의 추억, 사찰 창건 뒷이야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삶과 가르침도 글로 풀어냈다.

이 책에는 카메라 사용법도 모르던 초보에서 어느덧 경력 5년 차 크리에이터가 된 무여 스님의 좌충우돌 '유튜버 성장기'도 담겨 있다. 2019년 3월 개설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여 스님TV'의 성장 이야기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임은호 기자

친절한 말로 풀어쓴 스님의 불교 입문서

[이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불교 공부는 어렵다.'

불교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생각이다. '바라밀(波羅蜜)', '반야(般若)', '열반(涅槃)' 등, 공부하다 보면 흔하게 접하는 불교 용어는 한자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사전을 찾아봐도 피상적인 설명뿐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장벽 때문에 불교 공부를 어려워했던 사람들을 위해 친절한 언어로 재미있게 쓴 불교 입문서이다. 저자 원영 스님은 BBS불교방송 라디오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등을 통해 불교를 더욱 친숙하고 수월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 온,



대중과 소통한 경험이 많은 스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설명 대신 일상 속 쉬운 언어와 공감이 가는 다양한 예시,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개념은 표와 그림으로 표현하여 불교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그러면서도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를 중심 주제로 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교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나 개념은 별지의 형식으로 담아두었다. 이를 통해 불교 공부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껴왔던 부분들은 해소해주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다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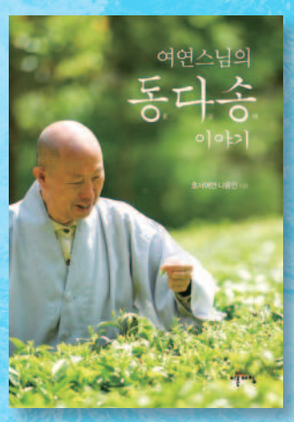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스님 · 한의사 함께 쓴 과학적 차생활 안내서

[여연스님의 동다송 이야기]
효서여연 · 나웅인 지음
이른아침 / 2만2000원

여연 스님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산증인이다. 1970년대 후반 다솔사의 효당 스님에게 차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 오늘날까지 한국 차계를 실질적으로 이끈 스님이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이번 동다송 이야기는 차문화 이론, 제다, 다례 등 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전선을 지켜온 여연 스님이 17년 만에 펴낸 신작이다.

초의, 다산, 추사는 우리 차문화사에서 매우 중추적인 인물들이자 수많은 논란의 주인공이다. 예컨대 다산이 제자뻘인 초의에게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그 제다법의 핵심은 구증구포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제다의 핵심



원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의 덖음 녹차에서 구증구포는 얼토당토않은 이론이라는 게 여연 스님의 결론이다. 책에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와 근거들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다산이 초의에게 제다법을 가르쳤다는 이유원의 기록에 근거해 많은 학자가 이런 주장을 내놓는 현실에서 스님과 공저자인 나웅인 한의사는 과거 기록, 특히 다산과 이유원의 행장을 점검해 주장이 왜 성립될 수 없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저자가 한 권의 책을 공저함으로써 상호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논리와 근거에 기반을 둔 주장을 담은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윤호섭 기자

처음·중간·끝도 좋은 괴로움 소멸의 '팔정도'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지음
불광출판사 / 2만2000원

이 책은 불교가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삶과 수행의 기준이 되는 생생한 강의로 안내해 온 초기불교 수행의 대표 멘토, 일묵 스님의 첫 저서이자 대표작이다.

2013년 출간되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은 '윤회〈일묵 스님의 초기불교 윤회 이야기〉', '사성제〈사성제〉', '삼독심〈화, 이해하면 사라진다〉'와 함께 행복을 향한 이정표의 또 다른 키워드로 '팔정도'를 제시한다.

특히 책 후반부에 자리한 팔정도의 구체적 실천법인 '중도(中道) 수행' 내용을 바로잡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



리하여 수행 방법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수정 · 보완했다. 팔정도는 불자는 물론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효하다. 팔정도는 몇 줄 글로 정리된 개념이 아닌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수행법으로서 종교를 초월한 지혜이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왜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한 순간이 더 많을까?', '평온해진 마음은 왜 다시 고통스러워지는 걸까?' ….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붓다의 말과 같이 이 책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네가 하나만 보호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다. 마음 하나만 잘 보호하라."

임은호 기자

"크게 죽어야 살아난다" 스님이 전한 고수되는 법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원제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우리네 마음. 어느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들이면 전문가가 된다곤 하던데, 인생은 왜 10만 시간, 20만 시간을 보내도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걸까. 기분이 좋을 땐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도, 기분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땐 보이지 않는 지하 땅굴까지 가라앉은 것만 같은 느낌.

이렇듯 어렵고 힘든 인생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나가기엔 막막하기도 하거니와 수많은 난관이 따른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 책은 원제 스님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빚은 수행의 결과물이자 삶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좋은 참고서다. 나를 옭아맸던 고통에서 벗



어나 진리와 자유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준다. 그 핵심은 견고한 틀로 고정된 '나'로부터의 탈출에서 시작된다. 그래야 세상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나'와 대립하지 않고 마음껏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락하고 자유로운 삶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대사각활(大死却活). 크게 죽을 때 도리어 살아난다. 내가 붙잡고 집착하는 '나'를 과감하게 죽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백척간두의 절벽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어야 허공을 거닐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고통마저도 환희심으로 맞이하는 삶, 그것이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나'를 잘 써먹으며 인생의 고수가 되는 길이다.

윤호섭 기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7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2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주민청에서 만난 영국인 알렉스로부터 아이슈 무크암 석관엔 예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의 지팡이 기록이 있다는 라자발로 향한다.



예수가 인도서 수행했다던데…

취재차 와봤던 곳이라고 하더니 기사가 아니었으면 고생깨나 했을 길이었다. 기사가 주민청을 금방 찾았다.

지저분한 거리의 길 끝에 낡은 블록 건물이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안으로 들어간 사이 셋은 길가에서 팔고 있는 차로 더위를 식혔다. 무슨 차인 줄도 몰랐다. 그저 시원하다기에 시켰는데 별로 차지도 않았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다.

삼십여 분을 기다렸을까. 주민청에서 나온 오오스마 기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가 아닌데요?

송 서화가가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죠?

송 서화가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가까이 다가온 낯선 사람을 보았더니 머리가 길었고 수염이 입과 턱을 덮었을 정도로 길었다. 동양인이 아니었다. 코가 높고 눈이 노랗다. 이제 마흔이나 되었을까.

오오스마 기자가 내게 먼저 그를 소개했다.

-안에서 만났습니다. 자신도 아디카야 검을 찾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군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인사나 하지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 이름을 밝혔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는데 알렉스라고 했다. 자신은 불교도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찾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전에 영국 방송에서 예수의 인도 생활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하 여기 어디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오셨구나!

송 서화가가 그와 악수하며 말했다. 나름대로 영어가 유창했다. 말을 알아들은 알렉스란 사람이 그렇다고 했다. 예수의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예수의 무덤이 있다는 스리나가르 로자발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여행객들이 너무 몰려들어 문이 닫혔더라고 했다. 잡상인이 판을 치고 순례객들이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가져가는 바람에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로자발 예수의 무덤이 있는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창고처럼 지어진 푸른 집이었다. 꼭 한국의 시골 방앗간을 연상시켰다. 문이 닫히자 순례객들이 몰려들어 문에다 키스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바람에 근접조차 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말을 나누다 말고 오오스마 기자가 나를 한쪽으로 끌었다.

-왜요?

내가 묻자 오오스마 기자가 사내를 히끗 쳐다보다가 이상한 말을 했다.

-우리도 아디카야 검을 찾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자기가 예수의 행적을 살피다 보니 예수의 스리나가르행을 알게 되었고 아디카야의 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곳 로자발에서 예수가 생활할 때 제자가 왈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이곳으로 와 로자발에서 살 때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팡이?

-왈리가 예수가 죽은 후 우리가 방금 들른 아디카야의 석관 속에 넣고 봉인했는데 그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나는 뜨악하게 오오스마 기자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립니까?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아디카야의 검이 아니라 예수의 지팡이가 무덤이었다 그 말인가요?

-스리나가르로부터 동남쪽 60km. 모세의 돌이 있는 비즈비하라 14km. 바로 여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슈 무쿠암이라는 건물이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답니다. 그 과정도 정확하게 일치해요. 동굴에 살던 쉬라 가문에는 자신의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든 석관은 언제나 푸른 천이 덮어져 있었고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전염병이 돌거나 큰 문제에 부딪히면 이곳으로 와 기도하고는 했답니다. 그 지팡이는 길이는 2.5m 직경 2.5cm라고 하더군요.

-그럼 칼이 아니라 예수의 지팡이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슈 무쿠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가 붙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슈 이사(Issa)에서 나온 것이며 무쿠암은 '쉴 장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증거가 솔로몬의 옥좌에 새겨져 있답니다.

-솔로몬의 옥좌?

-여러 세기 비바람을 견딘 솔로몬의 옥좌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바땃따라는 카슈미르 왕이 솔로몬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페시미르의 한 건축가가 복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리나가르에 있는 솔로몬의 옥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예전에 심 작가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솔로몬의 옥좌에 새겨진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이곳에서 생활했었다는…. 그런데 그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글귀는 없었어요. 예수의 지팡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확인한 것은 그 기둥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므르얀의 아들인 크와자 루큰이 만들었다. 그 시기에 유즈 아사프는 예언자적인 소명을 밝혔으며 그가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언자 예수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 아디카야의 검이 검이 아니라 지팡이이며 그것이 동굴 속에 묻혀 있다. 그 근거는 없었다. 그 말인가요?

내 물음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나 검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 그렇잖아도 나도 생각해 보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은 불교의 영향 아래 있던 곳입니다. 예수가 이곳으로 왔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슬람 문화권의 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가 이슬람에서 특별히 찬양받는 지위에 있고 보면 붓다가 남긴 성물이 예수의 지팡이로 둔갑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저 영국 사람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라자발 예수의 무덤에 가면 그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고….

-거긴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요?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말하고 오오스마 기자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거기 가면 예수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때 짚었던 지팡이 자국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행방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 자국? 지팡이의 행방? 아이슈 무쿠암의 성물이 그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 말인가요?

오오스마 기자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뭐 내가 잘못 보았나 싶고…. 정확하게 발자국 옆에 누운 지팡이 자국이나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가 하다 보면 정말 지팡이 자국이나 기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연신 갸웃댔다.

나는 어이가 없어 그를 쳐다만 보았다.

-꼭 로자발에 들어가야 한다면 못 들어갈 것도 없긴 한데….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내가 눈을 크게 떴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곳 책임자가 편집부 국장의 형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지팡이 자국이나 행방의 기록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요. 그것이 아디카야의 석관에 묻혔다는 것이 말이 돼요?

-문제는 지팡이 자국과 행방일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수의 발자국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의 발자국이겠어요. 후세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겠지. 그때 지팡이 행방을 함께 기록했다면 그만큼 그 지팡이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증거가 될 테고 무쿠암 석관에 들어갈 공산도 커지는 거겠지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오오스마 기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뇌까렸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넷이 그 길로 로자발로 향했다. 알렉스는 로자발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기되어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돕는 것 같다며 연신 성호를 긋고 "아멘"을 내뱉었다.

반면에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침통하다고까지 해야 할까. 혹시 예수의 발자국 옆에 지팡이 자국과 행방이라도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 역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토록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 내용물이 아디카야의 검이 아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다. 그 많은 신문 기사는 뭐고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뭔가. 어떤 이는 그에 대한 꿈을 꾸고, 어떤 이는 그 바람에 이국땅을 헤매고, 그 일을 기사화하려는 사람도 있고, 소설로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비를 죽이고 그것을 찾아 나선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칼이 아니라 예수의 지팡이일지도 모른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 고함이라도 질러 버리고 싶었다. 가자. 가보자. 지금에 확인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지 않은가.

스리나가르 구도시 칸자르 지역. 안지마르. 예언자의 무덤이라는 라우자 발(Rauza bal). 일명 라자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다 와 간다고 일러주었다.

가는 길에 언덕 정상에 지어진 사원으로 향했다. 한시라도 빨리 라자발로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오오스마 기자가 뜸을 들였다. 그도 막상 라자발로 들어가 예수의 지팡이 흔적을 확인하려고 하니 선뜻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사원 문 입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검문이 심했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비둘기 떼가 유독 많았는데 마당 가득 비둘기 떼였다. 검문을 피해 사원 안을 살펴보았는데 퍽 특이하게 지어진 사원이었다.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택시를 보내버렸으므로 걸어서 라자발까지 갔다. 택시 요금 때문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끝났다. 라자발로 향하자 도중에 오오스마 기자가 헷갈리는 모양이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다. 이곳 사람들도 그곳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

라자발은 골목 뒤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알렉스의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다. 녹색 지붕을 가진 건물이었다. 무덤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핸드폰에 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물 가까이 다가들어 키스하자 관리인이 달려왔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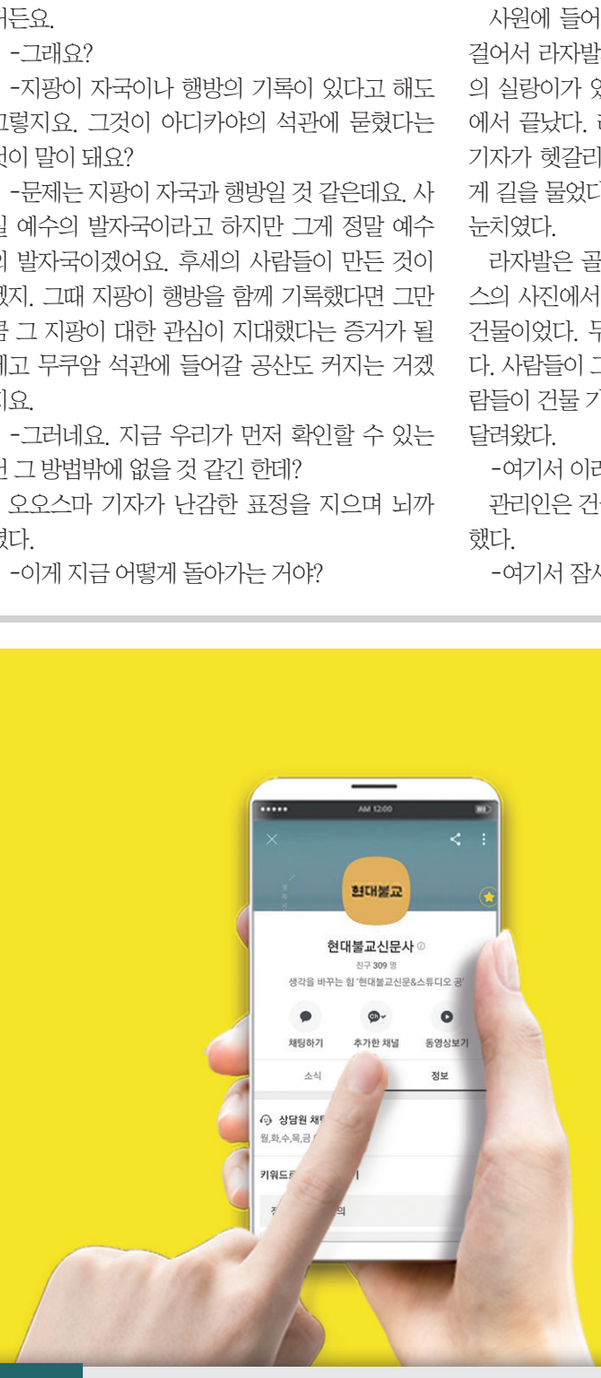
관리인은 건물 가까이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14 청식과 대중공양



▶한줄 요약
출가자는 오로지 수행에 힘써 깨달음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며, 재가자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얻는다. 따라서 대중공양은 불교의 시작과 함께해온 것이라 하겠다.

성스러운 상호 보시 '공양'과 '법문'

부처님과 제자들의 청식

불교에서 '대중공양(大衆供養)'은 두루 쓰이는 말이다. 여럿이 함께 공양한다는 뜻을 지녔지만, 주로 재가자가 출가 대중에게 음식 등을 올리는 뜻으로 쓰인다. 출가자는 오로지 수행에 힘써 깨달음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며, 재가자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얻는다. 따라서 대중공양은 불교의 시작과 함께해온 것이라 하겠다.

부처님 당시 비구들은 탁발 걸식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재가자들이 집으로 청해 공양을 대접하거나 정사(精舍)로 음식을 가져와 공양 올리기를 원하면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특히 재가자가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는 공양을 '청식(請食)'이라 부른다. 율장(律藏)에 청식이 전개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바라문이 부처님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 주실 것'을 공경히 청했다. 부처님이 침묵으로 허용하자, 그는 이튿날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께 알렸다. 부처님과 비구들이 발우를 들고 집에 찾아가니 그가 손수 음식을 대접했으며,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고 발우에서 손을 떼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부처님은 법문으로 그를 교화하고 격려하여 기쁘게 한 뒤 집을 떠났다.

재가자의 초청에 석가모니가 침묵으로 응하면, 재가자는 비구의 인원을 파악해 음식을 준비한 다음, 정해진 날 정사로 모시러 오게 된다. 이에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가사를 갖춘 채 발우를 들고 그의 집을 방문하면, 재가자는 직접 발우에 음식을 나누어주며 대접한다. 공양을 마치면 재가자가 한쪽으로 물러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석가모니는 법문으로 공양에 보답하는 것이다.

청식에는 모든 비구가 동참하기 어렵고, 기근이 들어 재가자들이 순조롭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 때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청식에 참여할 순번을 정하는 방식, 청식을 올릴 날짜를 정하는 방식도 마련해두었다. 승가에서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하는 것을 승차식(僧次食), 산가지 표찰(標札)을 제비뽑기하여 정하는 것을 행주식(行籌食)이라 하며, 재가자가 특정 비구를 지정하는 별청식(別請食)도 있다. 청식 날짜는 보름 · 그믐의 포살일에 제공하는 포살식(布薩食), 월초의 특정일에 제공하는 월초식 등으로 정했다.

'학지인정가정(學地認定家庭)'을 두어 청식과 탁발을 금하기도 하였다. 재가자 가운데는 승가 공양에 재물을 모두 쓰고 자신들은 굶을 정도로 빈한해진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이를 '학지인정가정'이라 명명하고 탁발과 청식을 금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청식을 허용하고 때로 금하는 융통성을 두어, 출가자는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재가자는 가정을 지키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안거 수행 중인 스님들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청식 때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행의(行儀)도 세세하게 정해두었다. '밥을 짓이기지 않고 먹기', '입술을 핥으면서 먹지 않기' 등과 같이, 재가자들 앞에서 어떻게 음식을 받고 먹어야 하는지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수행자의 품위를 지키고 나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청식에는 늘 법문과 축원이 따랐다. 재가자는 공양을 올려 복을 짓고, 출가자는 법을 설하여 보답하는 것이다. 일상의 공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중공양 또는 청식은 오늘날까지 성스러운 상호 보시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 속 청식과 대중공양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공양은 불교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 고려 때는 나라에서 수천수만의 스님들을 청해 공양 올리는 '반승(飯僧)'이 꾸준히 이어졌다. 반승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도 했지만, 대개 법회를 열 때나 탄일 · 기일 등의 왕실 행사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회경전에서 장경도량(藏經道場)을 열고, 구정에서 1만 명에게 반승했다"는 〈고려사〉 기록을 보면, 왕이 정사를 처리하는 정전(正殿)에서 의식을 행한 뒤, 궁궐 뜰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이 깊으면 사찰에 머물다가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임종이 가까울 무렵 스님들을 청해 공양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은해사에 머물던 의관 이탄지(李坦之)는, 재를 마련해 불공을 드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다음 밤새 천수진언을 외우다 임종하였다. 문관 김중구(金仲龜)는 자신이 중건한 봉고사(鳳顧寺)에 선승(禪僧) 백 명을 모셔 극진히 공양 올리고, 다음 날 눈을 감았다. 삼보의 가피가 함께하는 사찰을 이상적 임종 공간으로 여겨,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중공양을 올리며 사후를 위한 공덕을 쌓고자 한 것이다.



스리랑카에서 동자승에게 공양을 올리는 청식(請食) 장면. ©날개(superheavy)

조선시대에도 반승은 이어졌다. 왕실의 불교식상 · 제례에 대규모 반승이 함께하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왕실과 지배층의 원당(願堂)이 무수히 세워졌듯이, 개인이 설판재자가 되는 크고 작은 반승은 끊이지 않았다. 수국사의 전신인 정인사(正因寺)는 왕실에서 세운 사찰로, 1471년 인수대비가 중창하면서 규모를 119칸으로 늘리게 된다. 이때 '남쪽 17칸의 회랑을 반승의 식당으로 사용했다'는 중창기의 기록을 볼 때, 대형사찰에는 반승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처님 당시의 청식처럼 1960년대 무렵까지 신도가 집으로 스님들을 청해 공양을 올리는 문화가 있어, 이러한 대중공양을 '공양청(供養請)'이라 불렀다. 사찰의 전체 스님을 모시면서 마을주민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어 먹고, 다 같이 법문을 청해 듣는 작은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개는 마을의 신도 가운데 재력이 넉넉한 이가 노스님과 제자들을 청해 공양 올리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공양청은 1970년대부터 점차 사라지고, 음식점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대접하는 문화로 바뀌어 갔다. 돌에서부터 혼례 · 회갑 · 장례 등 일생의 모든 의례를 집에서 치르다가 점차 전문 식당 · 식장으로 옮겨간 맥락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양청은 평시에도 이루어졌지만, 특히 생일 · 환갑 등에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도분들이 손자 돌잔치를 하면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겠다고 찾아옵니다. 공양할 대중 스님이 백 명 넘어서 짜장면 공양을 해도 최하 50만 원은 드니까, 그 정도 갖고 와서 대중공양 · 짜장공양을 내시겠다는 거지요.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짜장으로 그렇게 특별식 공양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수 년 전 법주사 종무실장이 들려준 사찰과 아랫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그 제자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려, 모든 공덕이 아이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사찰에서도 평소 큰 힘이 되어준 신도 집에 생일떡 · 부각 등으로 보답하는 문화가 나란히 이어졌다.

공덕의 기반이 된 대중공양

광복 이후의 대중공양은 대개 신도들이 사찰에 음식이나 식재료를 보시하는 방식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공양은 결제에 든 선방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출가자의 본분이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기에, 신도들은 물론 본채 스님들도 선방 수좌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 전국의 선방에는 찹쌀 · 김 · 미역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떡이나 과일 · 빵 등의 별식도 들어왔다. 당시에는 접하기 힘든 바나나 · 초콜릿 · 사탕 등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중이 많은 곳에는 사탕을 가마니 크기의 포대에 담아왔고, 과일은 여러 개의 목판 상자에 가득 실어 왔다. 대중공양이 들어오면 식량은 본채에서 관리해 공양을 짓고 떡 · 김 · 과일 등의 별식은 선방으로 올려보냈다.

선방의 공양은 철저한 '평등공양'이다. 용상방(龍象榜)의 소임 가운데 '다각(茶角)'이 있어, 차와 관련된 일과 함께 공양물을 나누는 일도 맡았다. 선방으로 올라온 모든 음식은 대중 수대로 똑같이 분배된다. 과일이 한 개씩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인원수대로 계산해서 한쪽씩 나누고, 김도 들어온 수대로 한두 장씩 나누어주면 각자 밥을 싸서 먹었다. 먹을 게 귀한 시절이라 다시마도 반찬에만 쓰지 않고 선방으로 올려보내면, 각자의 몫으로 잘라서 간식거리로 삼곤 하였다.

'산중공양(山中供養)'이라 하여, 결제 중에 산중 모든 암자의 스님에게 올리는 대중공양도 있었다. 신도들이 음식 재료나 공양에 쓸 비용을 내면, 찰밥에 미역국과 두부구이 등을 만들어 전체 대중이 함께 공양하는 것이다. 산중공양이 있어 암자마다 기별을 알리면, 백 명에서 때로 수백 명 되는 스님들이 각자의 발우를 들고 모두 큰절에 모였다. 이에 큰스님의 법문과 함께 여법한 대중공양이 펼쳐졌으니, 천 년 전 반승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된다.

1967년 해인사에서 성철스님이 동안거 백일법문을 할 때도 대중공양을 올리겠노라 청(請)이 들어왔다. 대중의 의견을 모아 '만두 공양'으로 정해지자, 당시 방부를 들여 홍제암에 머물던 석남사 스님들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 홍두깨로 반죽을 밀어 찻잔 뚜껑으로 만두피를 뜨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만두 속으로 쓸 김치와 두부를 장만하며 모든 스님이 만두 만들기에 동참하였다. 그때까지 한 번도 만두를 먹어보지 못했던 스님들의 감탄이 함께한 환희로운 대중공양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발우공양을 할 때 오합(五盒) 발우를 지닌 노스님들을 볼 수 있다. 사합 이외의 하나는 쓰임새가 다양했는데, 찬발우보다 작은 하나를 더 지닌 경우는 대개 생반용(生飯用)이었고, 어시발우보다 큰 하나를 더 지닌 경우는 대중공양용이었다. 1990년대까지 진관사와 해인사 삼선암 등에서는 오합을 두면서, 대중공양으로 떡 · 과일 등이 돌면 가장 큰 발우에 받아서 차담용으로 썼다.

출가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려 자신의 공덕을 쌓는다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다. 더구나 수행자가 그 음식으로 공양하고 삼매를 성취한다면, 보시한 자의 공덕은 무량할 것이다. 선방에는 지금도 대중공양이 끊이지 않는다. 제철 과일과 옥수수 · 고구마 · 감자는 물론, 근래에는 호떡 · 와플 등을 굽는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직접 만들어 대중공양을 올리기도 한다. 하안거의 수행 열기와 함께, 출가자의 공부가 무르익을수록 재가자의 공덕도 커져만 가는 나날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⑭ '사유상'의 비밀



▶한줄 요약
반가사유상의 주인공은 싯다르타 태자다. 그의 사유의 모습을 조성한 것이 사유상이다. 그렇다면 싯다르타 태자는 무엇을 사유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가.

싯다르타는 무엇을 '사유'해 '미소'짓는가

'사유상' 의 주인공은 고타마 싯타르타 태자이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석기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태자 시절의 본명(속가 이름)이다. 그래서 이 존상을 '태자사유상' 이라고도 한다. 또는 석가모니가 아직 붓다가 되기 이전 보살의 상태이므로, 경전에서는 '석가보살' 로 칭하고 있다. '사유상' 은 태자의 어떤 모습에 근거한 것일까? 태자가 사유를 한다는데, 무엇을 '사유' 하는 것일까? 또 '사유' 란 무엇일까?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전체를 대大 서사시의 형태로 최초 저술한 마명(馬鳴, AD 1~2세기경)의 〈붓다차리타〉에서 '사유하는 태자' 모습의 근거가 되는 대목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화살 맞은 사자

〈붓다차리타〉의 '제5출성품(出城品, 태자가 성을 나가다)' 을 보면, 아버지 정반왕은 자꾸만 출가하려는 태자의 마음을 잡아 두려고 갖은 애를 다 쓰는 장면이 펼쳐진다. 훌륭한 오욕(탐닉) 거리를 아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여색과 음식 · 향연과 오락은 혐오감만 불러일으켰다. 당시 태자의 상태는 "다만 나고 죽는 괴로움(생사고, 生死苦)를 생각하기를 마치 화살 맞은 사자 같았네" 라고 기술되고 있다. 여기서 이미 태자가 무엇을 사유하는지 그 주제가 명시되고 있다. '생사고(나고 죽는 고통)' 이다.

모든 존재(또는 생명)는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또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윤회의 고통 속에 있다. '생로병사의 윤회' 를 '생사고' 라고 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사고에 갇혀있나?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태자의 온 정신은 이 화두에만 쏠려있었기에 다른 어떤 유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주제에 완전히 몰입되어, 그 답을 찾기 위해 절절히 고민하는 모습을 '화살 맞은 사자' 에 비유하고 있다.

'사유'의 의미

태자가 고민한 주제인 '나고 죽는 괴로움' 이란, '존재의 양태' 이자 '존재의 원인' 을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는 '나' 자체에 대한 궁극의 솔루션을 향한 도전이다. '나의 욕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일반 중생의 사사로운 고민이 아니라, 그런 욕망을 하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주체 또는 근원을 향한 도전이다. 다시 말해, 고통의 원인 또는 존재의 원인을 공략하는 대담한 '사유' 이다.

여기서 '사유' 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 불교에서 말하는 '사유(思惟) 또는 정사유(正思惟)' 는 사물의 이치를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각이나 유추를 관념적으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통찰하는 것' 을 말한다. 결과로서의 현상의 원인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현미경에 해당하는 것이 '통찰지' 이다. 통찰지의 계발은 더욱 미세한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이 된다. 통찰지를 '반야지혜' 라고 한다.

'정사유' 는 '연기(緣起)' 를 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붓다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수행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단계를 성취할 때마다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정사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한 계단을 오르면 그 계단은 다시 다음 계단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덩어리로 인식되는 개체(또는 관념)을 계속적으로 분해해 나가는 무기가 정사유인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마음을 내고 그 원인을 실제로 통찰해 보는 것이다. 선종의 화두 중 하나인 '이 뭣꼬' 역시 회광반조(回光返照, 빛을 돌이켜 비추어 보라)를 통해 '원인' 을 직관적으로 통찰해 보는, 그래서 '결과' 를 타파해 공空의 자리를 보는 같은 맥락의 수행이라 하겠다.

사유상 주인공은 '싯다르타 태자'
〈붓다차리타〉서 사유 근거 확인
生死苦 사유… 그 끝에 첫 삼매
태자, 평온함에 살며시 미소지어

무엇을 '사유'하는가?

이러한 '사유(또는 정사유)' 를 통해 태자가 통찰한 내용은 무엇일까? '사유상' 이 무엇을 사유하는 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출성품' 의 태자가 성 밖으로 행차를 나가는 대목이다. 태자의 눈에 들어온 세상 풍경을 요약하면 "농부가 흙을 뒤칠 때 온갖 벌레가 살려고 버둥치네/ 밭 가는 농부도 일에 시달려 몸은 여위고 땀을 흘리며 온몸은 흙먼지를 뒤집어썼네/ 밭 가는 소도 지쳐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네"이다.

세상의 뭇 존재는 고통이라는 형태로 그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를 보고 지극히 가엾은 마음이 들어 말에서 내린 태자. 그리고 염부나무 그늘 밑에 단정히 앉아 고통의 원인을 '사유' 한다.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고 '나고 멸하는 법'을 '사유'했다. 슬프다 세간 사람들이여! 어리석고 마음이 병들어 깨닫지 못하네(觀察此衆苦 思惟生滅法 嗚呼諸世間 愚癡莫能覺)/ 여러 사람을 편안하게 위로하며 각기 따라 앉게 하고, 자신은 염부수 그늘 아래에 단정히 앉아 바르게 사유했다(安慰諸人衆 各令隨處坐 自蔭閻浮樹 端坐正思惟)/ 모든 나고 죽음을 통찰하니 일어나고 멸함이 무상히 변하였다. 마음은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오욕의 드넓은 구름 사라지네.(觀察諸生死 起滅無常變 心定安不動 五欲廓雲消)"(필자 번역)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상반신 옆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생멸법'을 통찰하다

'사유생멸법(思惟生滅法)' 이라는 문장에서 '생멸법(나고 멸하는 진리)' 를 '사유'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유란, 원인의 통찰임을 앞서 언급했다. 즉, 나고 멸함을 통찰하니 그것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나고 멸함으로 발생하는 고통이 계속 변화하는 실체가 없는 것임을 보았다. 그러니 불타던 오욕의 검은 구름이 걷히었다. 더 이상 욕망에 끄달리지 않는 평정심에 진정 자유로웠다. 여기서 욕망이란, 생존 시의 식욕 · 색욕 · 수면욕 · 재물욕 · 명예욕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욕망 근저에 있는 생존에 대한 욕망(갈애)을 포함한다.

"여실히 깨닫고 여실히 보이는 속에 처음으로 무루선에 들었다/ 갈애(욕망)를 떠나니 기쁨과 즐거움이 차올라 바로 삼매를 받았다.(有覺亦有觀 入初無漏禪/ 離欲生喜樂 正受三摩提)"

무루선(無漏禪)이란,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색계色界가 아니라 어디에도 인연하지 않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진리 본체의 세계를 말한다.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출세간의 경지이다.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바로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가로지른다.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통찰지로 보니,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알고 일체 고통을 타파하다.(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五蘊皆空 渡一切苦厄)"

이렇게 존재의 실체를 관통하여 보니,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기쁨에 차올랐다. 이때의 기쁨은 '법열(法悅)' 이라는 것으로 진리를 통찰함으로서 생겨나는 지극한 평온함 또는 지극한 즐거움(극락, 極樂)을 말한다. 이것이 미소 짓는 '사유상' 의 비밀이다. 생애의 첫 삼매에 들자, 그 평온함에 절로 살며시 미소 짓는 태자. 존재의 고통을 통찰한 이러한 체험 이후, 싯다르타 태자는 (부왕의 의지와는 반대로)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명칭에 대한 고찰

'반가사유상' 이란 명칭은 일본 학자들이 명명한 이름이다. 이 존상은 기존의 일본학자들을 비롯해(일본의 학설을 그대로 수용한) 국내 학자들에 의해 '미륵상' 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존상이 유행한 당시(약 5~7세기)의 미륵상은 북위 및 북제 등지에서 발견되듯이, 걸터 앉은 자세로 다리를 교차한 교각상 또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앉은 의좌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신라의 '삼화령미륵삼존' 의 경우 본존인 미륵은 의좌상을 취하고 있어 반가좌의 사유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이 반가사유상을 미륵이라고 지칭한 근거는 여기에 있다. 아스카시대의 야추지사유상(野中寺思惟像, 天智5年(666)銘)의 대좌에 '미륵어상(彌勒御像)' 이라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보살 형태의 반가상에 존명이 새겨진 것으로는 (한국과 일본 통틀어) 이것이 유일한 예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한 · 중 · 일의 사유상 전체를 일본의 야추지사유상 딱 1점에 근거하여 이것을 미륵이라고 해야 하는 지 말이다. '역사적 실존' 으로서의 존상인가, 아니면 '미래의 구세자' 로서의 존상인가. 이는 당시 성행했던 불신관(佛身觀)과 맞물리는 문제이겠다. 만약 미륵상과 사유상의 접점이 존재한다면, 보다 충분한 작품 근거와 사료적 뒷받침을 통해 논증돼야 할 것이다. 이 존상을 미륵으로 보는 견해와, 한편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는 견해도 있어, 지금에는 '미륵' 이라는 명칭을 떼어내고 그냥 '사유상' 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예전에는 'Maitreya(미륵)' 로 지칭했다가 지금은 'Pensive Image(사유하는 상)' 라고 칭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이안의 Media In Buddha ⑳ 청호 스님과 영화 〈노아〉



▶한줄 요약
유명한 홍수 설화는 '노아의 방주'다. 이는 2014년 영화화됐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설화에 대해 말란 쿤데라는 키치의 원천이라고 비판했다. 1925년 대홍수에서 700여 명을 살린 청호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의 구제는 죽은 자에 한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처님의 구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진정한 구제 의미를 되새기다

지금은 '서울' 하면 강남이 노른자라고들 여기지만 한양 도성 사대문 안만 서울이던 시절, 강남은 뽕나무밭이었다. '상전벽해' 란 말은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고사성어다. 고사성어라고 하면 널리 알려진 옛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이 아예 특정한 상황을 이르는 관용어로 굳어지게 된 것이니, 상전벽해란 말에도 얽힌 고사성어가 있다.

중국의 신선 이야기를 모은 '신선전' 에 실린 '마고선녀이야기' 에서 비롯된 말이다. 우리 전래문화에서 단군 이전부터 창조신, 거인신으로 받들어지는 마고신, 마고할미는 큰 산이 있는 곳에는 전국 여기저기 돌을 옮기고, 성을 쌓고, 사람을 돕는 존재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중국에서는 도교의 선녀로 여겨지는 마고가 신선인 왕방평에게 "제가 신선님을 모신 세월 동안 어느 새 뽕나무 밭이 세 번이나 푸른 바다로 변하였습니다. 이번에 봉래에 갔더니 바다가 다시 얕아져 이전의 반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또 육지가 되려는 것일까요"라고 물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상전벽해라는 말은 이제는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다' 는 말로 쓰이고 있다.

지금 봉은사가 있는 강남 일대도 다 뽕나무밭이었다. 그리고 뽕나무밭이 지금은 백화점이며 호텔,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고 서울에서도 부자들 살고 학군 좋은 동네가 된 것은 푸른 바다가 된 것 못지않게 엄청난 변화일 것이다.

서기 794년, 남북국시대 신라 원성왕 시절에 연회국사가 처음 창건한 견성사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성종의 능인 선릉을 지키는 '능침사찰' 이 되면서 절 이름이 왕의 은혜를 받든다는 뜻인 봉은(奉恩)으로 바뀌게 되었다. 봉은사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유명한 고승들이 많이 난 절이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임진왜란에서 승병을 일으킨 서산 휴정 대사나 사명 유정 대사는 어지러운 전란 속에서 대중을 이끈 위인전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어지러운 것은 전란만이 아니다. 자연재해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협인가? 특히 강과 가까운 곳은 큰비가 내리면 홍수로 물난리를 겪곤 했다. 온갖 기상예측장비, 홍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크고 작은 댐들, 인공위성과 CCTV로 바로바로 확인되는 위험지역 정보들,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실시간 위험 경보 같은 온갖 시스템이 무색하게 홍수로 올해도 많은 목숨들이 희생되었다.

하늘의 일을 사람이 어쩔 수 없다지만, 전 지구적 기후위기는 사람이 지은 업보로 돌아오는 천벌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지 않고 미리 도로를 통제했더라면, 정치인들이 안전사회를 위한 기반 시설과 제도로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세계가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환경파괴적 기술 개발보다 환경친화적 생태주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희생이다.

봉은사에는 '나청호 대선사 수해구제 공덕비' 가 있다. 죽음을 무릅쓴 보살행으로 살아있는 부처로 칭송받은 청호스님 공덕비는 큰 홍수 앞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금 헤아리게 한다. 그 공과 덕이 얼마나 컸기에 살아있는 부처로 칭송받고 일컬어지고 공덕비가 세워지기까지 했을까?

일제 강점기였던 1925년 을축년에 큰 홍수가 있었다. 7월 6일 시작해서 7월20일까지 보름 남짓 전국적으로 쏟아진 비로 낙동강, 금강, 만경강, 한강 할 것 없이 다 범람하면서 전국적으로 1만여 채의 가옥이 침수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 한강 일대, 특히 뚝섬 일대의 저지대였다. 용산제방이 무너지면서 오늘날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마을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 뚝섬 상부에 있는 신천리 잠실리 두 동리에 살던 1000호 가구 주민 4000명이 전부 물속에 빠져서 절명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당시 그 지역은 무인고

1925년 대홍수로 물에 잠긴 강남
배 띄워 700여 명 살린 청호 스님
살아난 사람들 봉은사 공덕비 세워

설화 '노아의 방주' 2014년 영화화
쿤데라, "노아 설화, 저속함의 원천"
부처님의 구제, 산자 망자 모두 해당

도처럼 고립되어 배도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구조할 도리가 전연 없이 살려 달라는 울음과 비명만 들리더라고 신문에 기사가 실릴 정도였다.

급류를 피해 잠실 큰 느티나무 두 그루에 무려 708명이 올라가 구조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으나 총독부도 관료들도 속수무책으로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을 때 구제에 나선 사람이 바로 봉은사 주지 청호 스님이었다.

주지를 맡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당한 재난 앞에서 청호 스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거센 물살 앞에 배 띄우기를 주저하는 뱃사공들에게 인명을 구하면 포상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직접 배를 타고 나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 막 물에 잠기려는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 나무에 매달린 사람 등을 하나하나 구해 봉은사로 옮겨왔다. 지붕과 느티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을 모두 배로 실어 날랐을 때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던 느티나무 두 그루 중 하나가 뿌리째 뽑혀 쓰러지더니 곧바로 급류에 휩쓸려갔다고 한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29년, 그렇게 목숨을 구하게 된 708명이 뜻을 모아 공덕비를 세운 것이다.

이렇듯 뽕나무밭이 바다가 될 정도의 대홍수에 대한 기록은 세계 여러 문화에 신화나 전승의 형태로 남아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홍수 이야기는 아마도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일 것이다. 청호 스님이 사람을 구했다면, 노아는 뭇생명을 구했다. 왜냐하면 대홍수는 세상이 속속들이 썩어들어 무법천지가 되도록 망친 사람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려는 신의 뜻이었기에.



강남 봉은사 일주문 옆의 청호 스님 공덕비. 스님은 1925년 대홍수 당시 배를 띄워 7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을 살렸다. 사진제공=봉은사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노아〉(2014)는 무법천지 세상을 만든 것이 인간이고, 세상을 그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처벌이 대홍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뭇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인간 자신을 제대로 대대손손 잘 살리는 것이 그 처벌의 교훈이라고 훈계하는 영화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 교훈이 똥과도 같다고 했다. 〈노아〉에서 착란처럼, 환각처럼, 강박처럼, 몇 번이고 돌이켜 일깨우는 세상은 에덴동산이다. 창세기 첫 장에서 세상은 마땅히 딱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 것처럼 창조되었고, 존재는 선하며 그 때문에 올바르다는 것, 인간은 번식한다는 것이 참이며, 이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정언적 동의라고 할 때, 존재에 대한 정언적 동의의 미학은 키치, 그러니까 저속함이 된다는 것이다.

키치의 원천은 존재에 대한 절대적 동의라고 밀란 쿤데라는 단언한다. 그런데 키치는 인간 존재에서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을 시야에서 제외시키려하고, 그래서 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며, 마침내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노아가 받아들인 창조주의 지침, 계시다.

한국에는 〈프라하의 봄〉(1988, 필립 카우프만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됐던 영화의 원작인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마지막 장의 소제목은 '카레닌의 미소' 다. 카레닌은 전쟁과 독재, 저항, 사랑과 죽음이 엇갈리는 시대를 살았던 테레사, 토마스, 사비나, 프란츠, 네 명의 사람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시대에 나고 죽은 개의 이름이다.

밀란 쿤데라는 여기서 신이 인간에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지배권을 실제로 맡겼다는 확실성은 없건만, 인간이 이 권리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신을 생각해냈다는 것이 훨씬 있을법하며, 사슴이나 소를 죽이는 권리야말로 전인류가 이구동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한다. 데카르트에 이르러 인간은 소유주이자 주인이며, 짐승은 한낱 생기있는 기계에 불과하기에 인간이 짐승의 울음을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실험실에서 산 채로 해부되는 개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절대적 지배권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그러면서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확신이 어떻게 인간을, 국가를,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지를 경고한다. 체코에 러시아가 침입하던 처음 몇 년 동안 사람들을 조종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먼저 짐승들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들은 도시에서 비둘기를 제거하자는 캠페인을 펼쳤고, 실제로 비둘기들을 없앴으며, 그다음에는 개들을 겨냥했다고 한다. 러시아군의 침공 앞에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에게 신문들은 공원과 보도에 똥을 싸는 개, 아이들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이런 보도 때문에 대중들이 속에 켜켜이 분노를 쌓아놓았을 때, 마침내 사람들을 해직시키고, 잡아들이고, 재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화 〈노아〉에서 방주와 그 방주에 깃든 짐승들은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받았다가 인간이 살기 위한 희생제물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성서의 문헌적 고증이나 기독교적 교리를 따지기 전에 인간이 살아야할 이유를 찾아주려는 영화 〈노아〉는 이번에는 인간이 선할 수도 있을지를 기대한다.

이번 홍수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뭇생명들, 그리고 얼마 전 고인이 된 밀란 쿤데라를 애도하며 큰 재난 앞에서 청호 스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가장 위대하고 안전하고 장구하다고 생각하는 천지 세계에도 기근, 질병, 도병(刀兵)의 작은 삼재와 물, 불, 바람의 큰 삼재를 지니고 있다고 했으니, 작은 삼재로는 그 세계에 의지해 머무르는 유정(有情) 밖에 고통을 주지 못하지만 큰 삼재로는 세계 그 자체까지를 괴멸시키는 것이라. 부처님의 구제는 오직 죽은 자에 한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처님의 구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니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죽은 자를 위해 구제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도 구제하려 해야 할 것이다."

〈영화평론가〉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무엇을 통하여 원통을 얻었는가?
〈圓通〉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㉘ 원통(圓通)

〈원문〉 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의 대보살들과 그리고 번뇌가 다한 대아라한들에게 고하셨다.

"그대들 보살과 그리고 아라한들이 내 법 가운데 태어나서 무학을 이루었으니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묻노니 최초에 발심하여 십팔계(十八界)를 깨달았으니 어느 것이 원통((圓通)이었으며, 무슨 방편으로부터 삼마지(三摩地)에 들었는가?"

교진나와 다섯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제가 녹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여래께서 최초로 성도(成道)하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 음성에서 사제(四諦)를 깨달아 밝혔사오며, 부처님이 비구에게 물으매 제가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사 아야다(阿若多)라 하셨는데 미묘한 음성이 은밀하고 원만하여, 저는 음성에서 아라한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음성이 으뜸이 되겠습니다."

〈강설〉 〈능엄경〉 5권 마지막 부분과 6권에 걸쳐 나오는 대용을 25원통장(二十五圓通章)이라 한다. 부처님이 보살들과 아라한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원통을 얻었으며 삼마지에 들었느냐고 묻자 차례로 자기가 얻는 원통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다. 맨 먼저 교진나와 5비구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다. 이들은 녹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부처님의 최초 성도를 보고 사성제(四聖諦)를 설할 때 부처님 음성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사뢴다. 녹원은 초전법륜지로 알려진 녹야원(鹿野園)이고 계원은 마가다국에 있었던 계원정사(鷄園精舍)를 말한다. 음성은 성진(聲塵)인데 육진 가운데 먼저인 색진(色塵)이 아닌 성진을 먼저 말하는 것은 25원통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을 가장 수승한 것으로 나중에 추천하므로 이근(耳根)과 상대되는 성진(聲塵)을 먼저 말했다고 보기도 한다. 25원통은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을 합한 십팔계(十八界)에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견(見), 식(識)의 칠대(七大)를 합한 수치다.

교진나가 사제법문을 듣고 부처님으로부터 아야다란 이름을 얻고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것은 묘음이 밀원(密圓)한 것을 듣고 성진(聲塵)을 통하여 본성인 여래장묘진여성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성품 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설법을 하고 그 설법을 듣는 것이 모두 진여의 성(性)에서 나오고 또 그 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십팔계 가운데서 성진(聲塵)이 가장 원통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원통이란 원통무애(圓通無礙), 원통자재(圓通自在)를 줄인 말로 깨달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깨달음 자체 성품이 일체에 두루 미치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에 원(圓)이라 하고 묘용(妙用)이 자재하여 장애가 없기 때문에 통(通)이라 한다. 이는 또한 지혜에 의해 진여의 성품을 깨닫는 실천 수행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럴 때는 원통을 닦는다고 말한다. 25원통 중에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제일이라 하여 으뜸으로 치며 또 관세음보살을 원통교주라 하고 때로는 원통대사라 부르기도 한다. 또 원통은 육근의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근의 작용을 겸하여 일체에 두루 미치는 원융한 과보를 말하기도 한다. 일체중생이 모두 갖추고 있는 마음의 근원이며, 불보살이 증득한 성인의 경계가 모두 원통이다. 〈능엄경〉 6권에는 문수보살이 읊는 게송이 나오는데 이를 원통게(圓通偈)라고 부른다. "소리가 있다고 생기는 것고 아니고/ 소리가 없다고 사라지지도 않네/ 이것이 변함없는 진실이라네/ 듣는 성품은 생멸이 없는 것/(聲有亦非生 聲無亦非滅 此則常眞實聞性不生滅)"

이는 성진이 있건 없건 듣는 문성(聞性)은 항상 그대로라는 말이다. 라후라에게 종을 치게 하고 듣느냐 못 듣느냐 아난에게 물었을 때의 이야기와 같은 뜻이다. 이 '생멸이 없는 성품'을 두고 '생사를 따르지 않는 한 물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겨나도 본래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본래 사라진 바가 없다(生本無生 滅本無滅)하여 영가(靈駕) 법문에도 이 말을 설해 주기도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진여식 주체로 한 '진여수행 보시바라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㉘ 생멸문의 보시바라밀

가슴바탕에서 편안한 마음을 인식한 다음, 3지 첫째 마디를 억제하고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시상까지 들이쉰다. 중간기둥 'ㅇ' 발성으로 중황과 황정을 전체적으로 울려주고 중황자리에서 텅 빈 감각을 인식한다. 나선 호흡으로 세워진 무념주의 기둥과 발성으로 형성된 텅 빈 감각을 함께 주시한다. 가슴바탕에 세워진 편안한 마음이 선나가 된다. 손가락의 굴곡 각도와 호흡, 발성으로 각각의 뇌신경핵과 척수분절에서 막을 세워준다. 머리에서 천수 말단까지 43개의 서로 다른 막이 세워진다. 각각의 막에 머물러서 사마타와 선나, 간극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제도된다.

선나와 사마타의 간극을 활용해서 안팎의 경계를 비춰본다. 이것이 생각으로 행하는 보시바라밀이다.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이와 같이 관찰하고 그렇게 활용한다. 이것이 간극에 머물러서 안, 이, 비, 설, 신, 의로 보시하는 것이다. 진여 수행의 보시바라밀은 진여식을 주체로 해서 행해진다. 진여식은 9식이다. 9식의 체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해탈지견이다. 둘째는 암마라식이다. 셋째는 원통식이다. 해탈지견은 의식 · 감정 · 의지가 떨어져 나간 뒤에 갖추게 되는 진여식이다. 각성의 상태와 수행절차에 따라 두 단계의 해탈지견이 갖추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본각과 아라한도의 과정에서 갖추어지는 해탈지견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구경각과 보살도 과정에서 갖추어지는 해탈지견이다. 아라한도의 과정에서 갖추어지는 해탈지견은 본각이 주체가 돼서 밝은성품을 비춰보는 상태이다. 아라한이 진여출가를 하려고 하면 본각을 구경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본성과 각성을 서로 분리시켜야 한다. 본성과 각성을 분리시킨 다음 밝은성품의 기쁨에 각성을 집중하게 되면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이 상태가 보살도 초지 환희지의 상태이다. 보살도 과정에서는 2지 이구지까지 해탈지견이 쓰인다. 암마라식은 분리시켰던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갖추어진다. 제도된 생멸심이 불공여래장으로 전환되면서 갖추어지는 진여식이다. 3지 발광지, 4지 염혜지, 5지 난승지, 6지 현전지에서는 자기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암마라식이 갖추어지고 7지 원행지와 8지 부동지에서는 반연 중생들의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암마라식이 갖추어진다.

원통식은 6근원통을 통해서 갖추어진 진여식이다. 9지 선해지에서 갖추어진다. 원통식은 자기 진여식에 내재되어 있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고 생멸식의 바탕을 제도해서 6근 청정을 이룬 것이다. 10지 법운지에 들어가서 대자비문을 완성하게 되면 등각도에 들어가게 된다. 진여수행에서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은 9식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식 상태와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진여식은 완성된 식이 아니다. 진여식은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내재하고 있고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과 생멸심의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진여심을 제도하고 등각도로 나아가기 위해 진여수행의 6바라밀을 행한다. 보살이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대상은 해탈도의 과정에서 분리시켜 놓았던 자기생멸심이다. 두 번째 대상은 자기 생멸심에게 생멸 정보를 주었던 모든 존재들이다. 원초신에서 분리된 이후에 육입(六入)과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사(死)를 거치면서 인연되었던 모든 생명들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세 번째 대상은 생멸문을 이루고 있는 원초신이다. 초지에서부터 현전지까지는 자기 심식의를 이루었던 대상에게 보시를 행한다. 해탈지견과 암마라식이 쓰인다. 원행지와 부동지, 선혜지까지는 자기에게 생멸정보를 주었던 반연 중생들에게 보시를 행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흔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㉘ 무상정등정각

증명하면 얻을 것이 없다

산스크리트어 '아눗따라 삼먁 삼보디(anuttara-samyak-sambodhi)'의 한자말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서 '이보다 더 위가 없는 최고로 바르고 원만한 부처의 마음 또는 그 지혜'를 뜻한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많이 독송하였던 익숙한 언어들이다. 아마 대부분의 경에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번역일 것이다. 아마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번역된 언어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실만을 전달할 수 있지 그 깊이는 전달할 수가 없다.

음식의 맛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치찌개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김치찌개 맛을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 해도, 그 외국인이 김치찌개 맛을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맛을 경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뜻으로는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풀이에 표현하지 못하는 뉘앙스는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 뉘앙스이다. 이 뉘앙스는 그 외국인이 알아내야 하는 몫일 것이다. 이 뉘앙스는 일반인이 느끼는 맛의 취향이 아니다. 정확한 맛을 알려면 유능한 요리사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능한 요리사는 취향이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음식에 취향이 있어 그 뉘앙스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

유능한 요리사는 음식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맛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던 재료의 조화를 만들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맛을 살려낸다. 만약 유능한 요리사가 설명해주는 조리법을 듣게 되면 어떤 맛을 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음식 요리사가 끓인 김치찌개 맛을 한 번 보는 것이다. 김치찌개는 김치의 발효된 정도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다. 요리사라면 한 번 맛을 보면 발효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겠지만,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발효된 맛을 알기 어렵다. 같은 김치찌개라도 처음 만든 김치와 발효된 김치의 맛은 완전히 다르다. '바르고 원만한' 이라는 단어도 사전적인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숙성시킨 발효된 뜻을 알아야 한다.

"제법에는 자상이 없는 것도 아니요 자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아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그들이 망상을 품는 것이네. 마찬가지로 소위 일체법이 본래 공이요 생겨나지도 않으며 자성도 없는 이치 역시 이 관점으로 알 수 있네."

문 앞에서는 누구나 아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문을 열고나면 아는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앎이 아니며 증득(證得)한 것이 아니다. 앎은 증명하여 얻는다는 의미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본뜻은 증명하면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 두 글자의 조합은 오묘하다. 증명하게 되면 얻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얻을 것이 없음을 얻었지만 얻은 것은 아니니, 이것을 증득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동등하여 더 이상 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등하다고 하면 대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대상에 대한 동등함이 아니라, 거짓으로 놓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된 조건들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니니, 같다는 조건도 아니고 다르다는 조건도 아니다. 다만 그것이 거짓된 조건이라는 것이 동등한 것이다. 거짓된 곳에서는 많고 적음도, 옳고 그름도, 길고 짧음도, 행복과 불행도 사실이 없는 이미지의 관점일 뿐이다. 그런 관점을 가진 오온을 나라고 하고, 나의 것이라 하고, 나의 존재라 한다면, 바로 앞에 사실을 두고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가설이므로 많이 배운다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라는 한 문장밖에 없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5호 | 17 | 전면광고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나니, 이것이 바로
즐거움 가운데서도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9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밀 양 법 당

- 밀양터미널앞 2층 60평
- 전세 : 1천만원, 월세 45만원
- 비품 : 300만원

010-9343-5657

사 찰 안 내

- 대구 동구 신암동
- 대지 : 80평
- 1층 요사 , 28평, 방6개
- 2층 법당 26평
- 지하공양간 43평, 방4개
-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0-3501-5230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35-1739

포교원 안내

- 통영시 사거리
- 땅 60평 , 건평 36평 2층 건물
- 3층석탑 , 석등
- 마당주차 6대
-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완도군 군외면 당인3길 93
- 총평수 2000평
- 법당 22평, 산신각 6평, 요사체 35평, 25평(두채)
- 가격절충
- 서경보 스님 주석하셨던 사찰

010-5635-9499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토굴 (촌집)
- 윗채 15평 , 방 2개, 마루 아래채 12평, 방 2개, 창고
- 건물주인 : 비구니 스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미길 23
- 매매 : 3천5백만원
- 특징 : 허름한 시골 촌집, 아궁이 불지펴서 난방

대리인 : 010-2367-008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5천만원

010-8572-2440
010-8411-1217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산신각 불사 안내

- 소재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 사찰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기도도량 문성암
- 소개 : 덕룡산은 초의선사 출가도량이며, 백제의 고찰 불회사가있다.
- 시주: 설판시주 5천만원
  동참시주 1,000 만원 (5가족)
  동참시주 500 만원 (10가족)

061-337-0711 (문성암)
010-2354-9908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대지 155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1층
- 가액: 9억 (절충가능)

010-6760-8320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10분 거리
- 종교 계획관리 730평, 대지 250평, 요양부지, 요양원 토목공사 완료 1000평, 차고, 목조단청대웅전 50, 산신각 20평, 찜질방, 휴게소, 주방 종각 , 연못 잔디광장, 각종 탑, 진시사리, 12m 해주관음, 양쪽 대형용, 접견실방 5개, 남녀화장실 3, 요사채 4동,
- 보시고 상담 후 결정

1899-0047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포교당 (사찰) 안내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30평, 1층 후원, 2층 법당
- 태양광 설치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157-7697
010-4506-5302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45호 | 18 | 전면광고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주 명리 구성학

- 1대 1 강의! 단기완성!
- 포교당 스님!
- 찾집하실 보살님!
- 대전스님



010-9497-3476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집으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대금
- 밀양 : 영원사

010-3156-2211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개인지도 (3~12개월)

5장6부론. 사상체질론. 기혈음양론. 질병예측론. 신경성 질환의 원인과 치유법. 정신병과 특수성격. 질병치유 심리학 [암시명상최면]. 부부사랑학. 의처증과 의부증. 철학.

- 심리상담사. 정신과醫, 철학원. 불교. 여성단체. 무속인께 전수. 동양의학심리는 업계 최고의 학문

병의원에서, X-RAY, MRI 검사하고 처방을 하듯, 신병(神病) 기병(氣病)을 동양의학심리로 내용을 작성합시다!

문자남김 010-4078-7810

법문

법사를 초청하고싶은 사찰은 전화를 주시면 유익한 법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2871-6668 청효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⑬ 시역과의(是亦過矣)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시간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풀릴 때가 그럴 때일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현재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롭고 힘겨울 때가 그럴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떠올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시역과의(是亦過矣),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어둠에 갇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되뇌면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시간이 멈추지 않는 이상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지나가겠지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간,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스쳐지나 갔습니다. 지난 5월의 어느 날 저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척 사랑하고 아끼던 동생이자 친구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기 전날 어딘지 모르게 내 자신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고 해서 그 다음날 새벽 부처님 전을 찾았습니다. 108배를 올리며 혼자만의 명상도 가졌습니다. 주지스님과 차도 한 잔도 나누고, 산사를 내려오는데 "부고(訃告)"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한 나는 며칠 후에 그 친구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따로 찾아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생전의 많은 모습들을 추억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시간만큼은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니라 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㊱ 조용미의 '불도'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불교

불도 / 조용미

금골산 아래 오층석탑을 보고 나와 안치리 소포리 상고야리를 지나면 동백사가 있던 와우리에 닿는다
해질녘 날아가는 학에 마음을 빼앗긴 스님이 학을 잡으러 지력산에 날아올랐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곳

학을 놓친 스님의 가사가 떨어진 곳은 가사도가 되고 장삼이 떨어진 곳은 장삼도가 되고
바지가 떨어진 곳은 하의도가, 윗옷이 떨어진 곳은 상의도가
발가락이 떨어진 데는 발가락섬, 손가락이 떨어진 곳은 손가락섬이
그리고 심장이 떨어진 곳은 불도(佛島)가 되었다

가학리나 세방리의 일몰을 만나면 한동안 옛 스님처럼 바다로 뛰어들어 심장을 바다 저 멀리 떨어뜨리게 될 사람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

불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
불이 없는 불도에서 묵언수행을 했다고 한다
삼 년 동안 붉은 가사와 검은 장삼을 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심장이 떨어져 생긴 섬에서

눈이 오면 꽃이 핀다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향이 그윽한 비파나무 아래에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룽거리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붉은 심장을 주웠다
붉은 그것을 들고 돌아서서 나는 더듬더듬 처음인 양 그를 향해 말을 꺼내어보았다

(조용미 시집, 〈나의 별서에 핀 앵두나무는〉, 문학과지성사, 2007)

그것 참, 말, 된다. 가사가 떨어져서 가사도, 장삼이 떨어져서 장삼도, 바지가 떨어져서 하의도, 윗옷이 떨어져서 상의도, 발가락이 떨어져서 발가락섬, 손가락이 떨어져서 손가락섬. 그런데 심장이 떨어졌는데, 왜, 심장도가 아니고 '불도(佛島)'인가. 아무리 몽상하고 연구해도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필자의 아둔함을 탓할밖에. 그런데 또 묘한 것이, 꼭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은, 스님은 왜 하필이면 그 학을 잡으로 지력산에 올랐을까. 그 학이 뭐길래 죽음을 불사하고 지력산에서 '지력'[地力, 사력(死力)]을 다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동백사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에 있는 사찰 이름이다. 고려 초에 창건된 걸로 알려진 동백사에는 다음과 같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어려 있다. 동백사 주변 바다에 주지도라는 섬이 있다. 그 주지도를 어미처럼 거느리고 있는 섬이 가사도. 주지도는 또 다른 이름으로 손가락섬이라고도 한다. 또 발가락섬이라 불리는 양덕도라는 섬도 있다. 가사도를 중심으로 이런 섬들의 이름이 붙은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동백사에 밤낮으로 수행과 정진에 여념이 없는 스님이 계셨다. 어느 날 아리따운 여인 한 분이 절을 찾았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열심히 도를 닦던 스님은 그만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자 노한 하늘이 천둥 벼락을 내렸고, 스님의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 바다에 흩어졌다. 그때 스님이 입고 있던 가사는 멀리 날아가 '가사도'가 되었고, 바지는 '하의도', 상의는 '상태도'(상의도), 장삼은 '장산도'(장삼도)가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확장된 버전도 있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밑에 동백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절의 주지 스님은 득도를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진 중에 잠시 졸았는데 법당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스님, 저 왔어요." 여인의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주지스님은 법당문을 열었다. 그날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당에는 속세에서 사랑했던 여인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이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스님은 목탁을 던져버리고 맨발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여인을 법당 안으로 맞아들였다.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은 스님이 건네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다. 그런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스님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며 수행도, 해탈도, 성불의 마음도 모두 날려 버렸다. 이제 법당에 남은 건 삼존불 앞에 두 육체뿐이었다. 두 남녀는 서로를 탐닉하며 운우지정의 늪에 빠졌다. 그 희열의 순간, 하늘이 노했는지, 뇌성벽력이 동백사를 내리쳤다. 법당 안의 모든 사물들과 함께 두 남녀의 신체 또한 갈가리 찢겨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때 멀리 날아간 주지 스님의 가사는 '가사도'가 되었고, 장삼은 '장산도'가 되었다. 또 주지스님이 벗어놓은 바지 역시 멀리 날아가 '하의도'가 되었고, 여인의 은장도 역시 멀리 날아가 '장도'가 되었다. 주지와 여인이 운우지정을 나눌 때 옆에 있던 목탁 역시 멀리 날아가 '불도'가 되었다.

이제 다시 시로 돌아가 보자. 어느 날 조용미 시인은 동백사지가 있는 지력산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절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진도와 신안 앞바다에 흩어져 있는 섬에 대한 애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 순간 시인의 영감은 번뜩였고, 그 영감이 곧 이 시를 빚어냈다. 자신 역시 그 전설 속의 여인이 된 마음으로 "눈이 오면 꽃이 핀다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향이 그윽한 비파나무 아래에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룽거리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붉은 심장을 주"워 들고 자신도 "더듬더듬 처음인 양 그를 향해 말을 꺼내"보는 것이다.

시와 전설을 떠나 이 시는 '지족 선사와 황진이' 이야기처럼,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퍽 인간적인 시이다. 특히 불교에도 이런 치열한(?) 남녀상열지사가 있다는 것은 불교가 얼마나 인간의,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종교인가를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는 필자도 꼭 지력산 동백사와 주지도, 가사도, 장삼도, 하의도, 손가락섬, 발가락섬 등으로 만행을 가고 싶다. 그때 한 소식 얻으면 필자도 더 큰 해탈의 길로 들어설지 모르겠다. 끝으로 이 시의 백미는 마지막 행 "붉은 그것을 들고 돌아서서 나는 더듬더듬 '처음인 양 그를 향해' 말을 꺼내어보았다"이다. 이유는 더 깊이 상상해보시길.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한쪽다리 겨우 살렸지만
재활까진 막막

시댁 괴롭힘 벗어나 홀로 생계 이어가던 파르바티씨
끊어진 힘줄 스님 · 도반 덕에 수술…빚 1000만원 남아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에 답이 있다 ❸ 명상을 위한 준비

▶ 한줄 요약
처음 한 달간만 자기 자신에게 명상할 동기를 부추겨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명상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될 수 있다.

딱 한 달만 명상할 동기 만들자



명상에 임하는 태도

앞서 명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 그릇된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태도에 대한 수정이 없다면 명상 수행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명상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 10분 정도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고, 또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징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만을 위한 조용한 휴식 시간을 명상 시간으로 바꾸어 활용하게 되면, 그 이익은 단순한 휴식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커진다. 명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태도에 관해 살펴보자.

첫째, 명상이 시간낭비란 편견을 버려라. 명상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이완감을 느끼게 되고 활력을 느끼게 되며,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신체적 · 정서적 · 심리적 · 영성적 이익이 된다. 이는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현대과학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명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명상을 귀찮고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명상은 의무나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스스로 원해서 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권유에 의해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규칙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앞서 본 신체적 · 정서적 또는 영성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오면 강요에 의해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명상에서 얻어지는 유익한 점 때문에 명상을 한다고 생각을 바꾸어보라.

셋째, 명상을 경쟁하듯 하지 말라. 명상을 시작할 때 마치 누구와 경쟁하듯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상할 때 그들보다 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기 쉽다. 혼자 명상을 하는 경우라도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명상하는 동안 일어나는 경쟁심이란 이런 것이다. 예컨대 남과 더불어 명상할 때 누가 더 오래 앉아 명상할 수 있는가, 명상을 하는 동안 누가 흥미로운 경험을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되었는가, 혈압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가 등등이다. 이런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면 몸과 마음이 오히려 더 긴장되기 때문에 유익한 효과를 얻기는커녕 정반대의 나쁜 효과를 얻게 된다.

넷째, 겸손한 태도를 지니자.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신에 유익한 효과를 느끼게 된다. 이런 유익한 체험을 한 후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상의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여 언급하고 명상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이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명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 호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낼 수 있다.

다섯째, 마음이 성급해졌을 때는 명상하지 않아도 된다. 명상 초보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 안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명상하기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때 명상을 해본 사람들은 명상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아예 명상을 포기하기 쉽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낮은 평화로운 시점에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특정한 기대를 갖고 명상을 시작하지 말라.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이익을 얻길 기대하고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면 마음의 방황이 심해져 오히려 안정되지 못한다. 앞서 본 것처럼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신체적 이점을 주고 다음으로 정서적 · 심리적 이점을 얻게 한 후 그다음으로 영적인 이점을 준다.

일곱째, 명상 단계를 분석하려 하지 말라.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알아차림 하고 살아가는 마음훈련이다.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곧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의식의 초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상하는 동안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생각들에 사로잡혀 가지 말고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내버려두라.

누군가의 강요로 시작하지 말고
괜한 경쟁심에 욕심 부리지 말자
스스로의 약속 꾸준히 지켜가며
나만의 루틴으로 동기부여 하자

명상 동기를 부추기는 방법

명상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몸과 마음에 뚜렷한 이점을 얻게 되면 명상하고 싶은 동기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명상의 동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최소한 4주쯤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 한 달간만 자기 자신에게 명상할 동기를 부추겨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명상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때가 되면 명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처럼 명상할 동기를 부추기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비결이 있다.

비결1, 명상해야 할 이유를 열거해보라. 예컨대 명상하는 주된 이유가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 발작의 위험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사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명상하기에는 미약하고 막연한 동기이다. 그러나 가령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보라.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상이 된다. 이런 구체적 보상을 얻는 것이 보다 강한 동기를 유발한다.

비결2, 핑계 대지 말라. 중요한 것은 명상을 빼먹으려고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 첫 단계는 명상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명상을 하지 않는 대신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해 과연 '이런 이유가 진실한 것인가? 정말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것인가?라고 되물어보라.

비결3, 명상일기를 쓰자.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해도 한 주간 명상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적어두라. 글자로 써두는 것이 명상에 몰입하게 하는 보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명상이 끝난 후 그날의 인상을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명상일기를 쓰는 것은 심리적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비결4, 나만의 명상의식을 만들자. 명상을 의식화할 때는 명상하기 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조용한 장소를 택해 방석을 깐 후, 촛불을 켜고, 커튼을 내리고, 자리에 앉은 후, 전깃불을 끄는 등 일련의 의식을 치른 후 명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명상을 즐기지 못했다 해도 명상 세러모니를 통해 명상 욕구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비결5,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명상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바뀌는 수가 있다. 일단 조용한 곳에서 혼자 5분 동안만 명상을 해도 기분과 태도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명상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5분만 할애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5분 후가 되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결6, 짧은 시간 동안 하라. 오랜 시간 동안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치 오랜 시간 고된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귀찮은 일이므로 처음부터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로 명상하기를 꺼려하거나 건너뛰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 한 회차에 45분이나 1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 대신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명상을 해보라.

명상 전 준비사항

첫째,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듯 명상도 일정한 시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침 몇 시면 일어나고, 몇 시면 출근길에 나서고, 몇 시면 퇴근하는 것처럼 명상 시간도 하루의 시간 속에 고정적으로 지정해두자. 그런 후 자신의 명상 지정 시간을 주변인에게 알려 명상을 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명상할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라. 명상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전문가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명상을 할 수 있지만, 명상 초심자들은 편안하고 이완감을 불러낼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셋째, 명상할 분위기를 조성하라. 명상하기 위해 자리에 앉기 전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의식적인 행동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명상할 장소로 간 후 방석을 깔고, 커튼을 치거나 블라인드를 내리고, 어두운 등불을 켜고, 경우에 따라 향을 피우거나 촛불을 켜거나 기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일련의 의식적인 행동을 실천한다. 다음으로 명상 가이드용 음성이나 영상을 준비하거나, 향초와 같은 특정한 하나의 초점 대상을 설치한 후 타이머를 설정한다.

넷째, 편안한 복장을 선택하라. 명상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한다. 청바지나 쫄바지처럼 몸에 지나치게 달라붙는 옷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옷을 갈아입기에 적절치 않을 때는 허리띠나 넥타이를 좀 느슨하게 하거나, 와이셔츠의 첫 번째 단추를 풀거나 구두를 벗는 등, 조이는 장치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현갑 지음 / 담앤북스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토) 23:15



남을위해 기도하라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해설을 통해 참회 발원하는 기도정진시간
본방송 (수) 14:00 재방송 (수) 22:30, (토) 07:3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모든 것을 안에서 찾는 데에 역점을 두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법을 들으실 때에 설법 아닌 게 없지만 해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허술히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머거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데 딴 사람이 천둥 번개 쳤다니깐 귀머거리는 천둥 번개가 어딨느냐고 고집을 부리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이 오묘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을 방편으로 써서 얘기할 수밖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부합을 시켜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는 쓰고 배우면서 공부했지마는 지금은 쓰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한생각을 하고 그것도 더불어 같이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서 탐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자체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에 이 사대와 세상, 오온이 다 공한 줄 알게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뜻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건 부처님 앞에 정성 들이는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면은 우리 스님네들만 계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스님네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지 스님네들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한다면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일체 만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활면에서 있어서 모든 것을 한 생각 뉘우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죠. 가정에서나 내 몸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것이 계율에 어긋난 살림살이라면 그 살림살이는 벌써 어느 한구석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끄트머리에 꼭 다 향, 향, 향, 향, 향 했습니다. 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한지 아십니까? 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데에 쓰는 것이 향이냐?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종합해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데에, 마음 쓰는 데에, 뜻을 행하는 데에, 뜻과 행과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행의 계율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 한 것입니다.

"정향"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대와 오온이 전부 공한 줄을 알았다면은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며 일체 만법의 행을 하며 일체 만법의 눈을 뜨고 빛을 보며 또 일체 만법의 염파를 들으며, 또는 우리가 몸을 움죽거리면서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며, 뜻을 가지는 모두를 겸해서 '주인공'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주인공 자체, 그 자신의 실상, 근본을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일임해서 맡기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해서 '정향'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거지 나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바탕인 나의 주인공의 그 뜻을 가지고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모든 것이 공했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고 믿고, 거기서 전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오관을 통한 감각, 이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혜향' 이라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지각을 한데 합쳐서 마음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안팎으로 유의 법이나 무의 법이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고 능동적이게 마음을 쓰게 뒷받침을, 정향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에 거기다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혜향" 한 것입니다.

'해탈향' 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에부터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이지마는 아직 50%가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맡기고 믿고 지켜보면서,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놓게 되면 나중에 억겁에 걸친 업의 과보라든가 억겁에 대한 죄업이 얼기설기 다 묶어진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해탈향' 입니다. 그러니깐 억겁의 업보가 풀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향의 뜻입니다.

그러면 '해탈지견향' 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모두를 놓고 항상 밝아서, 유의 법 무의 법이 같이 밝아서, 내 생명의 근원과 마음 내는 것이 항상 밝으니까, 이 육신도 밝게 행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다 밝아서 통달하고 보니 무엇인들 거기에 걸릴 바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해탈지견향'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요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 자 화두를 가졌다, 또 '이 뭣고' 화두를 가졌다, 어떤 화두를 가졌든지 간에 그 화두는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인공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낸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발견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깐요, 이 바탕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화두라고 생각하고 근본에 바로 들이대라. 이것이 근본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는, 이게 제사 지낼 때 위패 놓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부처님을 조성해 놨을 때에는 '바로 저 부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요, 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니….'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셔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화두 든 것은, 우리의 이 몸이 벌써 화두로 정해졌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화두로 정해졌는데 바깥에 또 화두를 쥐고 있으니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한번 들어 봅시다. 모든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기계 한 귀퉁이가 고장이 나 가지고선 만약에 막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생활도 바로 놓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을, 밀려서 부닥치고 부닥치면서 사람이 고를 겪고 그러지 않을 것을 자꾸 만들어서 자업자득으로 생활을 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를 한번 비유해서 얘기해 보십시다. 이 우주 전체가 금강자석이라고 한다면 금강자석에 의해서 그 빠른 힘이 있어서 물이 이 지구 바깥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석과 같은 힘은 누가 가져왔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별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능동적이고 활용적이고 움죽거릴 수 있는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진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선이 떠다니다 떠다니다가 한데 모아진 것이 바로 지구 덩어리라고 본다면 그 능력에 의해서 금강자석이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자석에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자석에 의해서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체가 없는 마음이 마음을 동작을 시키는데 이것을 다 놓고 돌아간다면 자석에서 붙을 건 붙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해서 분해가 다 되는 것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크나 작으나 이건 못 한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 21면에서 계속

입니다.

그런데 그 자석이 떨어질 것도 없고 붙을 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런가? 이 금강자석이라는 것은 물건인 쇠 자석이 아니라 체가 없는 자석이라서 예를 들어 헝겊 쪼가리도 붙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겊 쪼가리든지 쇠 쪼가리든지 다 거기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보십시오. 그 자석에다가 쇠를 하나 붙여 보면 그 쇠 붙인 데가 또 자석이 돼서 다른 게 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능동적이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이 금강자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믿어하고 업신여기고, 바깥으로 신을 찾아서 '아이고 저 위대한 신을 내가 찾으면 잘될 테지.' 하는데 타의에서 찾는 그 마음은 다 지금부터라도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안에서 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고 탐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책 한 권 끼고 공책 하나 들고 연필 하나 가지고 책 보따리를 어깨에다 척 둘러매고 가서 공부를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벌써 변천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하던 그 방식으로 자손들을 키운대도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마음의 에너지로 하여금, 그 금강자석의 에너지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끌려서 한데로 새지 않게 만드는 자석을 가지고 해야지, 몸을 붙들려고 하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뜩이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금 끌려가는 형국인데 말입니다, 허허허.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부는 죽고 사는 게 없고 또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으며 또는 우리가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공부입니다. 자기가 뿌려 놓은 씨들도 자기 자석에 의해서, 그 자석의 위력이 딴 데로 새지 않는 마음, 올바른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육신, 허수아비 같은 육신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 법입니다. 육신은 개방시키면서 마음으로는 항상 그렇게 자석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잡아당긴다면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것을 고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게 놓고 참선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것도 참선이요, 말다툼을 한다 하더라도 참선입니다. 만약에 그 근본을, 그렇게 돼 있는 근본을 아실 것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나도 화를 자재할 수 있죠. 놓고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했다고 일 년 이 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화가 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도 한계가 있고 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속상한 것도 한계가 있고 잘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못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납득을 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납득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납득을 하고 우리 생활적으로도 납득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납득을 하시겠죠.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가는 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신다면, 한생각에 모든 걸 아주 자재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지혜적이고도, 여러분의 불성의 그 능력을 다 같이 한 주먹에 쥐고, 이것은 한 손에 들은 걸로써 한생각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조직체입니다. 한 그릇 안에서 우리는 한 살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이 자체가 큰 살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는 한생각이, 그 생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머저리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한생각, 지혜를 이런 때 써야 하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네들은 안하무인이니까 저 사람네들의 주장심, 즉 말하자면 금강자석이 있는 것을 홀딱 여기다 붙여 버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아주 유망하다 할 때는 금강석을 그쪽에다가 붙여 주죠. 그쪽 자석에다 붙여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백 명의 능력보다도 한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능력을 거기다 보충해 준다면, 바로 금강자석의 그 능력에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86, '88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마는 우리는 지금도 가난한 전세방에 그것도 반쪽으로 나누어진 이 전세방에서 그나마도 모두가 참 공평하지도 못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참 살기가 극난하다고 봅니다. 살기가 극난한 게 아니라 겁난다 이겁니다. 왜 겁나느냐. 나는 6·25를 지내 봤으니까 압니다. 지금은요, 6·25처럼 그렇게만 싸운대도 또 겁 안 납니다, 달아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새우 싸움이 만약에 고래 싸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안됐다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서 급하면 급한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겠어!', '지금 우리 방석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천만에! 여기에는 너희들이 손을 못 댄다!' 라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작으나 크나 '이건 못 한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금강자석은 약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자석은 한데 합쳐져서…, 우리는 조직입니다. 지금 지구 안이 달리 나투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로써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이루 종차 가르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도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데의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해라.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이것을 자석에다 탁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은 이 자석은 자기의 근본에서 나오는 분신이라서 에너지처럼 돌아다니며 다 해결을 합니다. 무에서는 무대로 해결을 하고 유에서는 유대로 부지런하게 뛴다면 이거는 정말 시쳇말로 '왔다' 입니다. 그렇게 걸리지 않고 능히 한생각에 우주가 들릴 수 있다면, 또 한생각에 우주를 덮을 수 있고 돌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바로 50%의 미완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겁 전 년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나오면서 인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학습 도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부하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탐구해 가지고 지구 자체의 색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생각으로서 일체 만법의 능력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어서 바로 우주적으로도 삼천대천세계적으로도 우리는 능히 한생각에 그쪽으로 고개를 끄떡만 해도 벌써 거기 가서 같이 상응하면서 한번 거기서 하루 동안 살아보기도 할 겁니다. 하루 동안 살고 여기 왔더니 벌써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던가요? 또 하루 동안 살았더니 아, 일 년이 됐답디다. 하루 동안 살았더니 만 년이 됐다 합디다.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하루다 이틀이다 한 달이다, 또는 가을이다 봄이다 이렇게 사계절을 정해 놓은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사계절을 이렇게 정해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 쓸 게 없다는 것은, 너무 나투어서 빨리 돌아가니까 공했다고 한 거지….

여러분이 그거를 납득해서 공부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본을 스님들한테도 자꾸 여쭤보고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싹이 났다고 해서 내가 나라고 세우고 모두를 내 눈 아래로 본다면 그것은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나가는,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꿈에 보인다고 하면서 꿈과 현실을 가리는데 꿈에 이러이러해서 나는 요런 게 됐으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왜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꿈도 현실이요, 현실도 꿈이니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데서 내 중심을 잡아서 주인공에 탁 놓고 놓은 자체를 생각할 때 믿음직하게 듬직하게 하면 바쁜 것이 바쁘지도 않아! 그랬는데 내가 바쁘지도 않은 사이에 벌써 일은 돌아왔어. 일은 해결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꿈에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꿈에 알았으면 '나를 공부시키려는 조짐이구나.' 하고 좋게 돌려서 놓고, 놓고 또 가다 생각나면 또 한번 생각해 보고 탐구해 보고 또 놔라. 그걸 노상 붙들고 가면 그냥 죽죽 오는 것이, 오는 것도 없는 게 오는 것이 그냥 막혀 버리면 살림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살림을 어떻게 걸리지 않고 하겠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오조 홍인 선사가 금강경에서 한 대목을 설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너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해 봐라." 이러니까 육조 스님이 "내 이 몸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더랍니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어렵지 않은 거를 내가 다 하는 거를, 일체 만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뭠이 없이 내가 한다는,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하게 되자 그것은 바로 오조 홍인 선사나 육조 혜능 선사가 둘이 아니게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져 버렸으니까 그것은 이쪽 쇳덩어리가 저쪽 쇳덩어리로 한데, 예를 들어서 자석과 같이 붙어 버린 것처럼 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네가 가는 것이니 이 바리때와 가사 장삼을 가지고 가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바리때나 가사 장삼이 법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날 싸움이 날 테니 이건 네 대에 없애라." 이럭하고선 마지막으로 주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서로 둘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말과 뜻이 맞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벌써 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뜻이 맞지 않으나 맞으나, 이것이 뜻이 맞지 않게 말을 해서 저쪽 상대방에게 해로울 기세가 보이고 또 역정을 낼 것 같으면 말은 하지 말고 안에다가 놓으면, 거기에다가 일임해서 놓으면 바로 그쪽 자석으로 염파가 가죠. 오관을 통해서 다 염파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우주간 법계는 거미줄같이 전부 허공에 쳐져 있다 이겁니다. 아마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면 한 부분이라도 볼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도 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잘사는 것도 못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85년 7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기세간의 소중함

〈器世間〉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기후변동 인한 아열대 작물 재배
심각한 식량재난으로 연결될 수도

우리네 삶 다른 생명 연결돼 있어
환경파괴는 인간 생존 위협 칼날

생명 하나하나 더욱 소중히 하고
주변 변화에 경각심 놓지 않아야

"현재 시간당 강우량 30~6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비탈면, 축대붕괴 징후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된 6월 25일 경부터 최근의 며칠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울렸던 안전 안내 문자의 내용이다. 시간당 강우량이 더 많은가의 여부만 다를 뿐, 행안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발송했다.

최근의 장마는 온순한 우기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스콜성 폭우의 성향이 강해진 까닭이다. 올해 장마기간에 내린 비의 대부분은 이 스콜성 폭우에 가깝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잠깐 내비친 태양은 어김없이 감당하기 힘든 폭염을 동반했다.

기후재난이라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사태이다. 실은 사태라기보다는 재난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재난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인류 차원의 위기에 가깝다.

긴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은 불과 최근 100여 년 동안 그 이전의 모든 시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자연을 파괴했고, 도시를 건설했고, 산업화를 성취했다. 이전의 모든 시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삶의 양식이 변화했고, 그 대부분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폭력적인 파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구의 증가, 인간 영역의 확대를 제약하는 협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대로 환경의 파괴 그리고 다른 생명 존재들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과 파괴를 낳았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들이 쉴 새 없이 제안되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와 나라에서는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을 뿐이다.

지금 당장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야기한 특별하고 일시적인 장마로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후변동으로 인한 재난에 직접 직면하고 있는 집단, 농어업 부문으로 가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동해 바다와 서해바다에서도 이미 아열대성 어종이 적잖게 포획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아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중부지방에서는 남부지방의 주산물들을 재배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했으니 좋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이나 어종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도 우리 삶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급격하기까지 하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식량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모두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주변환경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들의 삶은 뭇 생명들에게 터전을 제공하는 기세간(器世間)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기세간 곧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생명들의 파괴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로 들이닥칠 것이다.

인류의 문제, 혹은 개인으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존재에 대한 책임의 회피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요구하셨다. 과학적인 도구가 없던 그 시절에도 그러했다. 오늘날에는 과학도구가 발달하여 우리 인간의 무책임한 영역확대가 가져오는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 당연히 우리 주변의 생명 하나하나와 환경들이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무심결에 살지 말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지 않아야 보살의 삶이 가능할 것이다. 하물며 삶과 생명의 조건을 바꾸는 장마를 바라보는 눈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社說

대학생 전법은 범불교적 화두

201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종교인구 조사는 불교계 안팎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하나는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었고, 처음으로 무종교인 인구수가 종교인구를 추월했기 때문이다.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가 타종교보다 안 좋은 것은 미래 불교를 이끌 영유아 · 어린이 · 청소년 인구가 현저히 적어서다. 그나마 적었던 영유아 · 어린이들이 10년 뒤 현재 고등학생~대학생이 될 시기가 됐다. 지금 이들에 대한 전법 · 포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교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지난 7월 6일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7월 19일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불교 학생회가 있는 대학은 58곳뿐이다. 사실상 300여 대학은 캠퍼스 포교의 불모지와 같다.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1교구 1대학 지원을 목표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상월결사 대학전법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국 100개 대학에 불교 학생회를 설립하고 회원 2만 명을 목표로 삼았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전불교도들이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실제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범종단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8월 2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를 초청해 대학생 전법 현황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법에는 소속 종단이 없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전해진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이다. 지금 전법의 기틀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한국불교 미래는 없다. 붕괴된 계층포교 부흥의 징검다리인 대학생 전법에 범불교계가 나서야 할 때이다.

불교계, 호우 수재민에 자비 손길을

'극한호우.' 올해 기상예보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면서 한반도 역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풍수해를 겪고 있다.

실제, 올해 장마 기간 광주 · 전남 지역에만 최고 100㎜ 넘는 비가 쏟아지며 역대 4번째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인 590.8㎜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집계에서 최다로 기록됐다.

그러다 보니 올해에는 유독 재산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예천에는 산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숨졌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실상 인재여서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우로 인해 46명이 숨졌고, 4명은 실종돼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유산을 비롯해 전통 · 일반사찰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사찰 문화재와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수마로 모든 것을 잃은 수재민들이다. 7월 20일 현재 일시 대피자(누적)는 15개 시도에서 1만 1544가구 1만 7810명으로, 이 중 2093가구 3193명이 귀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이 발 빠르게 구호단을 구성해 구호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찰들의 구호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불자들도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내어주길 바란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나도 한 송이 연꽃이 된다

연꽃이 싱그럽게 피어나는 7월이다. 만물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연꽃이 함초롬히 피어나면 새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벌들은 간밤에 젖었던 날개를 말리느라 붕붕거린다. 대기는 한층 싱그러워지고, 세상은 바야흐로 순수해진다.

진흙탕 속에서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꽃, 흙탕물이 꽃잎에 묻지 않는 꽃,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연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 특히 송대 도학(道學)의 문을 연 주돈이(周敦頤)의 연꽃 사랑은 각별했다.

그는 〈애련설(愛蓮說)〉에서 "나 홀로 연꽃을 사랑하나니, 진흙탕에서 피어났으나 오염되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었으나 요염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줄기 속은 비어 통하고 밖은 곧으며, 덩굴로 뻗지 않고 가지를 치지 않는다. 꽃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으며, 물 가운데 우뚝 서 있으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라고 연꽃을 찬탄했다.

육지나 연못에는 아름다운 꽃이 얼마든지 있지만 주돈이가 연꽃을 사랑한 것은 혼탁한 세상을 초월하여 곧고 청렴하게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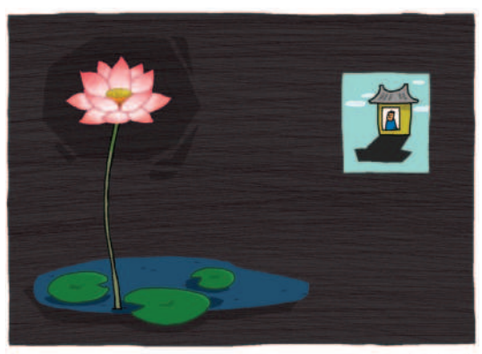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록 악취 나는 부조리한 환경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가지를 널리 뻗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파당을 짓거나 무리를 짓지도 않는다.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에는 매몰차지만 정신을 지키는 것은 굳건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고하고 청량한 군자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그것은 연꽃의 빈 댓 속처럼 마음이 비었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본래 허공이다. 마음이란 원래 광대무량(廣大無量)한데 진흙탕 속에서 욕심, 분노, 치정 등 온갖 오물을 묻혀 주먹만 해진 것이다. 주먹만 한 마음속에는 오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한다. 마음이 오물로 막혀 있으면 연꽃 향기는 뚫고 나올 수가 없다. 편견과 사심이 없는 텅 빈 마음에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의 향기가 퍼져 나온다.

연꽃 향기는 진하지 않고 은은하지만 그 향기는 멀수록 맑다. 청정한 진리의 말씀은 현란하거나 요사스럽지 않으며, 의무나 책임을 짓게 하는 중압감을 안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담백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저절로 그 말씀이 몸에 배어들어 나도 한 송이 연꽃이 된다. 그 불법의 말씀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온갖 미물에게까지, 시대를 넘어 후손에게까지 맑고 청정한 향기를 피워내는 것 아닌가.

푸르른 연꽃 밭을 걸으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를 나도 지어본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블랙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